

남북 스포츠교류의 활성화 방안

결과보고서

2019. 01. 31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3. 연구방법	8
1) 자료수집	8
2) 분석방법	9
II. 동서독 및 남북 스포츠교류의 개괄	12
1. 동서독 스포츠교류의 역사	12
2. 남북 스포츠교류의 역사	14
3. 남북 스포츠교류의 의미와 남북 스포츠회담의 범주	18
1) 남북 스포츠교류의 의미	18
2) 남북 스포츠회담의 범주	18
III. 남북 스포츠교류 관련 신문분석	20
1. 남한신문(조선일보, 한겨레)	20
2. 북한신문(로동신문)	30
3. 남북 신문분석에 따른 남북 스포츠교류의 의미	40
IV. 남북 스포츠교류 전문가 의견	45
1. 독일 스포츠학자 자문	45
1) 스포츠교류와 남북통일	45
2) 독일의 사례와 남북 스포츠교류 정책	46
2. 남북 스포츠교류 전문가 자문	49

1) 남북 스포츠교류에 관한 통일부의 입장 변화	49
2) 통일부 관계자가 바라본 남북 스포츠교류의 문제점과 한계	52
3) 한국계 외국인이 바라본 남북통일 이후 스포츠정책에 대한 조언	53
3. 북한이탈주민 면담	54
1) 남북 스포츠교류에 관한 북한의 입장 변화	55
2) 북한이탈주민이 바라본 남북 스포츠교류의 문제점과 한계	57
V.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스포츠교류 활성화 방안	59
1. 남북 스포츠교류의 법적체계와 원칙	59
2. 평화지향의 스포츠교류 정책	60
1) 남북 스포츠교류의 법적 구축	60
2)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유치의 성공적 지원	61
3. 공동번영을 위한 스포츠교류 정책	62
1) 올림픽 공동개최 이익의 공유	62
2) 스포츠중계방송의 공유와 활용	64
3)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간의 교류협력 강화	64
4. 통일지향의 스포츠교류 정책	65
1) 쉽고 가능한 남북 스포츠교류 활성화	65
2) 남북한의 이질적인 스포츠환경 개선	66
VI. 결론 및 제언	67
참고문헌	7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18평창동계올림픽(2.9.~2.25.)에 북한이 참가한 것은 남북¹⁾ 스포츠교류 역사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스포츠교류의 힘은 적대적 관계에 놓인 정치 상황을 뚫어내는 스포츠의 힘에서 나온다. 적대감이 커져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대화나 교류가 단절되었을 때 유일하게 교류를 가능케 하는 했던 분야는 스포츠였다.

스포츠교류가 중단된 양국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던 사례는 통일 전 독일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서독은 1951년부터 1955년까지 불과 5년 동안 무려 200여 회에 걸친 공식 또는 비공식 접촉과 회담을 가졌고, 올림픽 단일팀 성사 후 1957년 한 해 동안 무려 1,530회의 스포츠교류를 실시하였다²⁾. 이와 함께 1970년 동서독 기본조약과 1972년 통행조약에 이어 가장 먼저 제도적 틀을 갖춘 게 양국 스포츠의정서였다. 이렇듯 1970년대 초 미국과 중국 간의 핑퐁외교³⁾가 바로 스포츠교류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다.

남북의 경우도 스포츠교류 회담은 다른 어느 분야의 어떤 회담보다도 먼저

1) 현재 국내에서 발표된 여러 연구물에서는 ‘한국(South Kore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North Korea)’을 지칭하는 단어로써 ‘남북’, ‘남북한’이란 표현을 혼용하여 쓰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북한(北韓)’이라는 단어가 남한 사회에서만 통용되고 있는 편향된 용어로 인식하여(김병로, 2017), ‘남북한’이라는 표현 대신 “남북(Inter-Korea)”이라는 단어를 주로 택하여 사용한 점을 밝힌다.

2) 주독대사관(1993),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12장 스포츠 교류에서는 12-1 단절과 경쟁의 스포츠 교류사(기본조약 체결 이전), 12-2 스포츠 교류에 대한 입장, 12-3 조약 및 협정, 12-4 스포츠 교류 계획의 수립과 시행상의 제문제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3) 핑퐁외교는 1971년 4월 6일에 열린 제31회 나고야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탁구 선수를 비롯한 미국선수단 14명 기자 4명이 같은 해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 저우언라이 총리와 면담을 가진 데에 이어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을 순방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20년 이상 미-중 간의 막혔던 교류의 징검다리를 놓은 사건을 말한다.

시작되었고 자주 개최되었다. 남과 북은 1946년까지 경평아이스하키, 농구, 축구와 같은 스포츠교류가 자연스럽게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양측의 만남과 헤어짐만 반복되었다. 이어 스포츠회담의 초기인 1957년부터 1970년 초반까지는 북한의 일방적인 스포츠교류 제의와 우리의 수세적인 대응이 오고 갔다. 그런 뒤 1964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공식적인 남북 스포츠회담이 처음으로 열렸으나 만남 그 자체로 의의를 둘 뿐이었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말까지 84LA올림픽, 88서울올림픽, 1990북경아시안게임 등을 앞두고 단일팀 구성을 위해 십여 차례의 남북 스포츠회담을 하였으나, 이 역시 남북 간 성과 없이 만나고 헤어짐만을 반복하였다. 이후 대한민국은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진보정권하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스포츠교류가 이루어졌으나 다시 보수정권하에서는 스포츠교류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상태로 반복을 거듭하였다. 그러다가 지난 2018년 1월 1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하면서 남북관계는 급반전됐다. 동년 1월 9일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고,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하여 민족이 하나 되는 극적인 장면들을 연출하였다. 이어서 5월에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8월에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아시안게임에서도 단일팀으로 참가하여 새로운 역사를 써나갔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이 만들어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한 해 동안 남북정상들을 3번⁴⁾이나 만나게 했고, 사상 처음으로 북한과 미국의 역사적인 회담을 이루어냈다. 게다가 지난 9월 14일 개성공단 내에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였고, 9월 19일 「9월평양정상회담선언」을 내놓았으며, 각종 분야(군사, 체육, 보건, 산림, 통신 등)에서도 회담도 추진케 하였다⁵⁾. 이처럼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남북 스포츠교류는 북핵 문제로 꼬인 정치적 이슈의 물꼬를 트는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18년 11월 26일에는 남북 공동등재한 씨름이 아프리카 모리셔스에

4) 남북정상회담은 2018년 4월 27일, 동년 5월 26일, 동년 9월 18일에 진행됐다.

5) 이와 관련한 내용은 본 글에서 각주 0을 확인하길 바란다.

서 열린 유네스코 주관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는 스포츠를 통한 남북 간 평화분위기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개연성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이다.

남북관계에서 스포츠교류가 중요한 이유는 한때 ‘주적’ 관계에 있던 남과 북이 스포츠를 매개로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양국한테 새삼 발견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남북 간 더욱 특별한 스포츠교류의 행사는 적대국이자 상대국의 주최로 진행된 국제스포츠행사에 다른 한쪽의 국가가 참여한 경우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의 대회로는 남한이 주최한 대회에 북한이 참가한 대회는 2002부산아시안게임,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8평창동계올림픽 정도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이 대회들은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가고 있던 분위기 속에만 진행된 행사도 아니었다. 당시 국가 간의 관계와 대회 참여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먼저, 2002부산아시안게임 당시 남한은 진보성향의 김대중 정권으로 햇볕정책을 내세우며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이에 비해 북한 김정일 정권은 지속적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을 통한 외화획득에 관심이 많았다. 남한과의 교류를 통해 북한의 침체된 경제회복을 중요한 가치로 두던 때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2부산아시안게임에 최초로 북한선수단과 응원단 700여 명이 대거 참가하였다.

이어 2014인천아시안게임 당시에는 남한에서 보수성향의 박근혜 정권이 집권하고 있었으며, 북한에는 김정은이 김정일에 이어 3대 세습을 성공시킨 때였다. 이 무렵 남한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었다. 이는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피습사건,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핵문제 등이 이어진 결과이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대치상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2014인천아시안게임은 이러한 시점에 개최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선수단 포함 273명이 남한에서 진행한 대회에 참가하였다.

더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남한에서는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권으로 남북한 관계개선에 적극적이던 때에 진행됐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과 임원 포함 500명이 참가하였으며, 고위급 관료까지도 개막식에 참석한 이례적인 대회였다. 게다가 올림픽 이후에는 남북 고위층 및 남북 관련 각

종 회담까지 이어져 양국 간의 평화 무드는 지속됐다.

앞선 국제스포츠행사는 남북 간 정치적 관계가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상황과는 관계없이 남과 북이 만난 대회로 평가해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교류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 스포츠교류의 의미와 기능을 확인하고, 통일 사업으로서 향후 지속가능한 정책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앞서 나열한 국제스포츠대회를 면밀하게 살펴보려 한다.

한편, 연구진은 본 연구와 관련하여 2018년 7월 20일, 세계스포츠사학회에서 “History and Meaning of Inter-Korean Sports Exchange”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2018년 10월 5일에는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과 서울시체육회 공동주최의 세미나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스포츠교류 정책 방향”이란 내용을 발표하였다. 게다가 2018년 11월 27일 서울대학교 2018통일기반구축 연합 학술대회에서 본 연구와 관련한 중간발표를 한 바 있으며, 책임연구자의 지도에 따라 남북스포츠 관련한 두 편의 석사학위논문이 파생연구로 진행되었다⁶⁾.

6) 책임연구자의 지도로 안배현은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태권도의 변화양상 및 특징’, 송윤규는 ‘루만의 체계이론으로 관찰한 남북 스포츠교류와 스포츠의 역설’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안배현의 논문에서는 『로동신문』에 게재된 태권도 기사 내용분석을 하여 북한태권도의 특징을 파악하고, 북한태권도의 변화양상을 고찰하였다. 분석대상으로는 1992년부터 2017년까지 총 26년간 『로동신문』에 게재된 태권도 기사 643건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태권도 기사의 보도량과 증가량이 많던 7개의 연도를 중심으로 기사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정성적 분석인 기사내용 분석과 함께 정량적 분석인 빅데이터 분석방법인 텍스트 마이닝 기법(Text Mining)을 활용해 기사 제목에서 자주 사용된 단어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거쳐 시기별 특징을 짚어냈고, 이를 통해 북한태권도의 맥락 변화를 읽어냈다. 한편, 송윤규는 남북교류 전반 및 남북관계의 개선에 유용한 도구로 평가 받고 있는 스포츠의 본질을 독일의 사회이론가 루만의 관찰자의 관찰 개념을 통해 고찰하였다. 그는 ‘스포츠란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 물음을 통해 남북 스포츠교류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보다는 ‘누가 어떠한 구별을 투입하여 스포츠를 관찰하는가’, ‘그로 인해 무엇이 지칭되었고 무엇이 배제되었는가’라는 체계이론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남북 스포츠교류에서 나타나는 스포츠의 선택된 특성과 배제된 특성을 고루 밝히고자 했다. 또한 이를 통해 ‘대립을 통한 화합’, ‘경쟁을 통한 감동’, ‘결과 지향으로 인한 과정의 추구’ 등 스포츠의 역설적 특성에 주목하여 지속가능한 남북 스포츠교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계스포츠사학회 구두 발표



독일 학자 자문(장소: 독일 윈스터)



아데나워 재단, 서울시체육회 공동주최
세미나 구두 발표



아데나워 재단, 서울시체육회 공동주최
세미나 연구원 단체사진



DTM서울포럼 구두 발표



DTM서울포럼 연구원 단체사진



석사학위 논문 중간발표



88전국체전 국제학술대회 구두 발표

더불어 본 연구진은 12월 말 남한의 최북단에 위치한 고성 통일전망대와 DMZ 박물관에 방문하여 남북 분단의 현장을 체감하고, 남북 스포츠교류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고성 통일전망대 통일관 앞에서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본 금강산과 해금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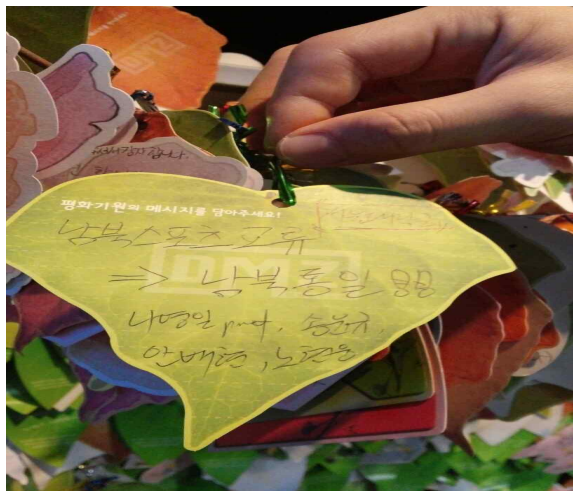
DMZ박물관 조형물 앞에서



DMZ박물관에 전시된 남북여자아이스하키선수복



DMZ박물관의 관람객 참여 이벤트인 '평화기원 메세지' 앞에서



연구진이 소망한 남북스포츠교류 활성화의 메시지 전달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남한에서 개최한 2번의 아시안게임(2002부산아시안게임, 2014인천아시안게임)과 1번의 동계올림픽(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한 사례를 분석하여 남북이 인식하는 스포츠교류의 의미와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스포츠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문헌을 중심으로 남북 스포츠교류 및 동서독 스포츠교류의 역사를 비교하여 스포츠교류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한다.

둘째, 신문기사를 통해 2002아시안게임, 2014아시안게임, 2018동계올림픽대회 관련 남북 스포츠교류의 의미를 탐색한다.

셋째, 남북 및 동서독 스포츠교류 전문가에게 자문을, 북한이탈주민에게 면담을 받아 남북 스포츠교류의 문제점과 지속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본 연구분석에서 확보한 결과는 앞으로 진행하게 될 2020도쿄하계 올림픽, 2022베이징동계올림픽과 같은 국제무대에서 남북 스포츠교류 정책에 유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며, 2032남북하계올림픽의 개최 성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3.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연구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문헌고찰’, ‘신문분석’, ‘전문가 인터뷰’이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고찰의 경우는 남북 스포츠교류 관련된 자료와 우리나라보다 앞서 분단과 통일을 이미 경험한 동서독의 스포츠교류 자료를 비교·검토하였다. 참고한 문헌으로는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부 주독대사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에서 발간한 공식 자료 및 국내에서 출간된 남북 스포츠교류 문헌이 주를 이루었다.

둘째, 신문분석은 남한에서 주최한 국제스포츠대회에 북한 팀이 참여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2부산아시안게임,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집중 조명하여, 당시의 남북 관련한 기사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때 남북 관련한 기사는 남·북한의 시각에서 동시에 관찰하였다. 즉, 남한신문인 조선일보⁷⁾, 한겨레⁸⁾와 북한신문인 로동신문⁹⁾에 게재됐던 남북 스포츠교류와 관련한 기사를 수집·검토하였다. 남한신문을 조선일보와 한겨레로 정한 이유는, 남한 내에서 북한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자료에 해당하는 신문기사의 조사 범위는 남과 북의 신문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구체적으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경우 2002년, 2014년, 2018년 기준 1월~12월까지인 반면, 로동신문의 경우는 2002년과 2014년은 1월~12월까지이며, 특수하게도 2018년은 1월~9월까지로 제한하였다¹⁰⁾. 수집된 신문자료는 국제스포츠대회

7) 조선일보는 1920년 3월 5일 창간되어 남한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보수성향의 신문으로, 10대 중앙 종합 일간지에 속한다. 2017년 기준 1,513,073부로 가장 발행 부수가 많다,

8) 한겨레는 1988년 5월 15일 창간되었다. 남한의 10대 중앙 종합 일간지에 속하며, 진보성향을 고수하고 있다. 2017년 기준 239,431부로 중앙 종합 일간지 중에 7번째로 발행 부수가 많다.

9) 로동신문은 1945년 1월 11일 창간된 북한 정권의 대표적인 대변지로 관공서, 농장, 공업소, 학교, 가정 등에 전국적으로 배분되고 연간 600,000부가 발행되고 있다.

10) 이같이 2018년 로동신문의 수집 기간을 1년 단위가 아닌 9월까지로 조정한 이유는, 남한에서 북한신문을 공수하는 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연구기

를 통해 이루어지는 남북 간 스포츠교류와 양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살펴보는 데 활용하였다.

셋째, 전문가 인터뷰로 남북한 또는 동서독 스포츠교류와 관련하여 독일 교수 3명, 통일부 관료 2명, 일본 교수 1명, 탈북자 4명에게 자문을 받았다. 이들은 스포츠교류에 관한 전문가들로, 본 연구에선 이들의 자문내용을 분석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참고하였다. 또한 남한에서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탓에 탈북자의 면담 내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객관성을 보충한 면도 있다.

2) 분석방법

(1) 신문기사 분석

신문기사 분석방법은 남한신문과 북한신문에 게재된 2002부산아시안게임,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를 지면 구성에 따라 일차적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남북관계에서 스포츠교류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분류기준은 남한신문(조선일보, 한겨레)의 경우 총 8개 면(스포츠면, 정치면, 사회면, 여론면, 경제면, 국제면, 문화면, 종합면)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북한신문(로동신문)의 경우 총 6개 면(1~2면이 정치, 3면이 경제, 4면이 사회, 5면이 남한, 6면이 국제)¹¹⁾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지면별 기사의 수를 종합하였고 기사 제목을 통해 스포츠교류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2) 전문가 자문 및 북한이탈주민 면담

전문가 인터뷰는 남북한 정부 및 양국 간 주민들이 체감했던 남북 스포츠교류와 통일의 상관관계에 무게를 두어 진행하였다. 또한 동서독 통일 당시 스

간 동안 10월~12월까지의 기사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이에 북한 로동신문 수집 과정에서 연구의 제한점이 따름을 밝힌다.

11) 통일교육원(2013:184-5)의 내용 재구성.

포츠교류의 기여,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반도 통일과 스포츠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남북 스포츠교류 및 동서독 스포츠교류 전문가 또는 관련자의 정보는 <표 1>과 같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질문한 문항은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면담자의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1. 면담자의 기본정보

구분 \ 내용	이름 / 소속	면담 일시 / 장소
독일 스포츠교류 관련 전문가 3명	NOO 교수 / 독일 M대학	2018. 7. 19. ~ 20. / 독일 윈스터
	HOO 교수 / 독일 M대학	2018. 7. 19. / 독일 윈스터
	LOO 교수 / 독일 K국립체육대학	2018. 7. 19. / 독일 윈스터 2018. 10. 14. / 서울 2018. 11. 1. / 서울
남북 스포츠교류 관련 전문가 (통일부 관료) 2명	BOO / 대한민국 통일부 소속	2018. 05. 28. / 서울
	SOO / 대한민국 통일부 소속	2018. 08. 03. / 서울
남북 스포츠교류 관련 전문가 (재일교포 일본 교수) 1명	KOO 교수 / 일본 S대학	2018. 09. 06./ 서울
북한이탈주민 4명	JOO	2018. 05. 15. / 서울
	LOO	2018. 06. 28. / 서울
	HOO	2018. 07. 06. / 서울
	POO	2018. 11. 29. / 서울

다음으로 남북 및 동서독 스포츠교류 전문가, 북한이탈주민에게 질문한 문항은 아래의 표에 제시한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다. 참고로 면담자 중 “일본

스포츠학과 교수”는 한국계 1.5세대 재일교포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 교수를 ‘남북 스포츠교류 전문가’에 포함하였다.

표 2. 면담 질문사항

구분	내용	질문 내용
독일 스포츠교류 관련 전문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서독 통일에 있어 스포츠교류의 기여는 어느 정도였는가? 2. 1972년 원헨 하계올림픽 개최가 동서독 스포츠 교류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라 생각되는가? 3. 서독 정부는 1972원헨올림픽을 동서독 스포츠 교류 또는 동서독 교류에 어떻게 활용하였는가?
남북 스포츠교류 관련 전문가 (통일부 관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북교류에서 스포츠 교류의 비중은 어느 정도라 생각되는 가? 2. 2002부산안게임,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8평창올림픽에서의 남북 스포츠교류를 비교해 본다면? 3. 차후 우리가 남북 스포츠교류를 진행할 시에 고려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남북 스포츠교류 관련 전문가 (재일교포 일본 교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북 스포츠교류를 제3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2. 남북 스포츠교류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북한이탈주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02년 북한에 있을 때 2002부산아시안게임에 대해 언론이나 사람들이 언급한 것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2. 다양한 스포츠 종목들에서 남북교류가 진행되었는데 북한 주민들의 관심 정도는 어떠했나?

II. 동서독 및 남북 스포츠교류의 개괄

1. 동서독 스포츠교류의 역사

1940년대 남북한과 비슷한 시기에 냉전체제의 일환으로 분단되었던 동서독은 일찍부터 동서독 스포츠회담뿐만 아니라 스포츠교류가 진행되었다. 동서독은 남북한이 1963년 도쿄올림픽에서 단일팀 구성 관련 체육회담보다 11년 전인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단일팀 참가를 위해 체육회담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단일팀으로 참가하였다. 이는 남북한이 1991년 단일팀을 구성한 것보다 28년 정도 빠른 것이다. 이후 동서독 스포츠교류는 1990년 통일이 될 때까지 지속해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표 3. 동서독 스포츠교류 연표

년도	내용
1945.12.01	Dismantle all sports organizations in Western occupation Germany, allow only non-military sports activities
1948.10.01	East Germany Sports Council (DSA) established Promote socialist ideology education to the West Germans through sports exchanges with West Germany
1957-1961	Active physical exchange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1957(1230), 1958(389), 1960(160), 1961(738)
1964.10.10	Formed a joint Olympic team and played a race to select players.
1966	The resumption of sports exchanges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1972	<Basic Treaty> East and West Germany strengthen their support for sports organizations to develop sports relationships
1974.05.08	Signature of final agreement for DSB and DTSB representatives-Protocol on the rules of sports relations and Joint Statement Convention for Sport Negotiation in Germany
1986	Under Article 10 of the Cultural Agreement -Establish commitment to support exchange cooperation in sports

<표 3>은 동서독의 스포츠교류를 요약한 것이다. 이 중에서 동서독 스포츠 교류사에 주목할 점은 1972년 뮌헨올림픽이다. 뮌헨올림픽 전후로 동서독의 관계개선은 남북 스포츠교류에서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1972년 뮌헨올림픽 당시는 전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로 나뉘는 냉전시대로 동서독 역시 이념에 따라 경쟁적인 관계였다. 체제뿐만 아니라 스포츠경쟁 관계인 동독이 서독 주최의 뮌헨올림픽 참석은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독입장에서 체제선전에 역효과 가능성이 있는 뮌헨올림픽 참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1972년 당시에 동독 선수들은 경기력이 서독선수들에 비해 우수했다. 비록 서독 주최의 올림픽이지만, 많은 종목에서 동독선수들의 메달 획득 가능성이 컸으며, 이는 동독의 체제 선전에도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내용은 본 연구에서 진행한 독일스포츠교류 전문가와의 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독 선수들이 더 강했습니다. 강한 엘리트 스포츠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서독 선수들은 아마추어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동독 정부가 스포츠 선수들에게 많은 지원을 한 것과 달리 서독은 별로 없었습니다. (HOO. 2018. 7. 19)

동독에는 8만명의 엘리트선수가 있었습니다. 서독은 8천명에 불과했죠. 동독은 선수 선발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었습니다. 국제대회 메달 획득이 가능한 개인 종목 위주로 선수를 양성하는데, 서수 2명에 코치 1명이므로 코치진이 풍부했습니다. 메달을 따면 경제적 혜택이 무척 많았습니다. 구소련 연방국가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를 띄고있습니다. (LOO. 2018.10. 4)

둘째, 동독이 1972뮌헨올림픽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 인정을 정치적 이득이 있었다. 이 내용 역시 독일스포츠교류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재차 확인하였다.

1972년 뮌헨올림픽으로 동-서독관계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올림픽 이후 서독이 동독

을 보통(정상)국가로 인정하여 외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HOO. 2018. 7. 19)

동독은 윈헨올림픽을 통해 스포츠에서 먼저 독립적 지위를 얻고, 이후에 정치적으로 독립적 지위를 얻었습니다. (ROO. 2018. 7. 19)

윈헨올림픽 전후로 빈번한 동서독 간의 스포츠협상과 교류 그리고 동서독 기본조약(1972)과 스포츠협상(1974)까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윈헨올림픽이 독일통일과 평화에 미친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통일 이전에 동독과 서독은 스포츠조직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 서독은 자발적 모임으로 8만 개의 클럽에 2,80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었고, 생활스포츠 중심이었다. 학교스포츠도 지자체 소관이었다. 하지만, 동독은 엘리트 중심의 조직이고, 생활스포츠라는 것이 없었다. 국가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공장과 기업에 스포츠조직이 있을 뿐이었다. 1989년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통일이 되면서 기존의 서독 11개 지역협회에 동독이 가입하는 형식으로 16개가 되었다.

정치적으로 통합을 이루면서 곧바로 스포츠조직 또한 통합되었다. 1990년 3월 18일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서 27세의 여성 장관이 스포츠부를 관장하며 빠르게 통합이 이루어졌다. 동독의 스포츠조직은 하루아침에 해체되었다. 동독에는 3만 명의 스포츠행정인력이 있었는데, 통일이 되면서 이러한 비효율적 조직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존재하기 힘들었다. 3개월 만에 5,000번 정도의 동서독 스포츠 만남이 이루어졌다.

2. 남북 스포츠교류의 역사

광복 이후 남과 북이 갈린 후 1945년 10월 27일에 오늘날 전국체전에 해당하는 자유해방경축 전국종합경기대회에 북한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1946년 후반부터는 독립적으로 북조선 제1회 체육경기대회를 개최하면서 남한과는 별개로 이루어졌다.

남과 북은 올림픽경기나 각종 세계대회 또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서로에게

스포츠교류회담을 제의하곤 했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¹²⁾ 학위논문¹³⁾이나 학술지 논문 또는 기고문¹⁴⁾ 등에서 남북 간의 스포츠교류역사에 대하여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더불어 특정대회를 앞두고 벌어진 회담의 내용, 남북 스포츠교류의 향후 과제, 해결방안 등을 다룬 글들이 150여 편 이상 존재한다.

그리고 몇몇 연구자들은 남북 스포츠교류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나름대로 시대구분을 하였다. 대개 1970년대, 2000년대 하는 식으로 십 년 단위로 구분하여 특별한 사건을 나열한 것이 대부분이다¹⁵⁾. 이런 방식으로 구분하게 되면 쉽게 정리는 되지만, 남북스포츠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진은 남북 스포츠교류를 크게 5시기로 구분하였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간단한 표를 통해 시기 구분을 서술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시기 구분 및 특징

시기 구분	기간	특징
제1시기	1957년~1983년 (27년)	남북 스포츠교류의 별다른 진전이 없던 시기
제2시기	1984년~1990년 2월 (6년)	남북 스포츠회담 관련 대화가 남북 간 이루어지던 시기
제3시기	1990년 3월~2007년 (18년)	남북 스포츠교류와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서 공동입장을 하게 되는 시기
제4시기	2008년~2017년 (10년)	남북 스포츠교류가 거의 단절될 정도의 어둠던 시기
제5시기	2018년 이후 (現)	남북 스포츠교류의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

12) 박주한(1985, 1997), 김동선(1992), 김승재(1992), 송형석,안민석(1999), 하웅용(2000), 김흥태(2002), 정찬모(2002), 이학래(2007), 황옥철(2007), 김재우(2013), 김미숙,송병록(2013) 등 많은 연구자들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 김동선이 가장 활발한 연구를 펼치고 있다.

13) 2018년 9월 20일 현재까지 RISS에 99건이 검색된다.

14) 2018년 9월 20일 현재까지 RISS에 153건이 검색된다.

15) 황옥철(2007)은 「남북한 체육회담변천사」에서 광복이후 1959년 이전까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까지로 6시기를 나누었고, 김동선(2017)도, 「남북 스포츠교류협력의 추진기조와 과제」란 글에서 1960-80년대: 대북반공정책으로써의 남북 스포츠교류협력, 1990년대: 대북수용정책으로써의 남북 스포츠교류협력, 1990년대말-2000년대: 대북포용정책으로써의 남북 스포츠교류협력, 2000년대말-현재: 대북조건부 상호주의로써의 남북 스포츠교류협력으로 시대를 구분하였다.

제1시기는 1957년부터 1983년까지 약 26년의 기간으로 북한 측의 공세적인 대화 제의와 올림픽과 세계대회 등에서 남한을 배제하려는 시도로 오로지 만남 그 자체에 의미를 두었던 시기다. 1957년 북한이 잠정적으로 IOC에 가입하였으나 IOC는 북한 NOC가 올림픽과 같은 대외적인 사업은 한국 KOC를 통하지 않을 수 없게 조치하였기에 남북 스포츠회담의 제의가 불가피하였다. 이어 1960년 김일성은 8.12경축행사에서 남북 체육교류를 공식제안하였다. 이후로 1964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1963년에 로잔, 홍콩 등에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가 이루어졌으나¹⁶⁾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이후로 1979년 북한 주최의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이 먼저 참가신청을 하여 비자를 신청한 것을 빌미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하여 단일팀 제안을 하였다¹⁷⁾. 한편, 남한에서는 1979년 10.26사태와 신군부 세력의 등장으로 정치적 혼란을 겪는다. 이 무렵에도 1981년에 88서울올림픽유치를 확정하면서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지만 1983년까지 남북 스포츠교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제2시기는 1984년부터 시작되어 1990년 2월까지 약 6년의 기간으로, 그동안 대화만 주고받던 남북 스포츠회담에 작은 씨앗이 만들어지던 때이다. 이 무렵에는 1984년 LA올림픽과 관련한 3차례, 1988년 서울올림픽과 관련한 4차례 그리고 1990년 베이징아시안게임 단일팀구성을 위한 9차례의 남북 스포츠회담이 있었다. 1981년에 한국이 88서울올림픽을 유치한 뒤 남북의 경쟁구도 속에서 남한이 북한을 조금 앞서가는 상황 속에서 스포츠교류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고, 북한은 1984년부터 공동개최를 주장하는 등 양국의 대화만 화려했던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논의한 회담은 판문점에서 이루어지면서 성사될 듯 말듯 하는 줄다리기 공방이 9차례나 이루어지면서 열매 맺을 준비를 조금씩 완성했다.

제3시기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약 17년의 기간으로 실제적인 스포츠교류가 이루어지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공동입장이 이루어지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기였다. 이 당시에는 88서울올림픽 이후 1989년부터 동구권이 붕

16) 김재우 (2013). 「1963년 로잔 남북체육 회담에 관한 역사적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2(4), 21-33. 김재우(2013), 「동경올림픽대회(1964)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1차 홍콩 체육회담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2(4), 17-33.

17) 박주한(1997: 11), 「남북한 스포츠교류의 사적 고찰과 전망」, 한국체육대학 박사학위논문.

괴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1990년 남북통일축구란 이름으로 단일 팀 구성이 판문점에서 논의되고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축구, 탁구, 농구 등의 실질적인 스포츠교류가 이루어졌다.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 1991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분단 반세기만이자, 남북 스포츠회담 시작 30여 년 만에 최초로 역사적인 남북스포츠 단일팀의 꿈이 실현되었다. 이후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공동입장을 하면서 대내외에 남북 스포츠교류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켰고, 실제로도 축구, 농구, 탁구, 태권도 등의 종목 간 스포츠교류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군부정권에서 1993년 문민정부로 이행되었으나, 1994년 김일성주석 사망, 1996년 시작된 북한의 고난의 행군과 1997년 남한의 외환위기에 의한 IMF사태 등으로 남북스포츠는 한동안 소강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따금 교류가 이어졌다.

제4시기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약 9년의 기간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이념이 북한과 크게 달라 남북 스포츠교류가 거의 단절될 정도로 어둡던 시기였다. 특히 2008년 금강산에서 발생한 남한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인하여 2009년 남북 스포츠교류는 겨우 2건에 지나지 않았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 북한은 선수 150명을 포함한 선수단 273명을 파견해 북한이 참가하면서 잠시 스포츠교류가 이어졌으나 5건뿐이었다. 당시 북한의 고위급인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국가체육지도위원장,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등이 10월 4일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남한에 왔으나 남한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돌아갔다. 이후로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는 경색되어 2017년까지 지속되었다. 2015년에 체육관련 남한방문은 1건으로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 대표단장 사전회의를 위한 북측대표단 4인의 방문이었으며, 2016년 북한의 남한방문은 한 건도 없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7: 511).

제5시기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면서부터 남북이 화해하고, 남북은 물론 북미 정상간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현재까지의 시기다. 아마도 이번 2018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인해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은 남북 스포츠교류 역사상 가장 의미가 깊고 중요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3. 남북 스포츠교류의 의미와 남북 스포츠회담의 범주

1) 남북 스포츠교류의 의미

남북 스포츠교류에 대한 의미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백서』에 잘 표현되어 있다. 『2014체육백서』에서는 “첫째, 남북 체육교류는 역사성을 갖는 문화행사로서 전통을 갖고 있다는 점, 둘째, 남북 체육교류·협력은 스포츠 자체가 갖는 대중성 때문에 민족공동체 성원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 셋째, 남북체육은 타 분야에 비해 높은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점, 넷째, 남북 체육교류는 국제단체를 통한 중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5: 543). 그리고 『2016체육백서』에서는 남북 스포츠교류의 기능을 크게 정치적 기능, 사회문화적 기능, 경제적 기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492).

2) 남북 스포츠회담의 범주

‘남북 체육회담’인가, ‘남북 스포츠회담’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와 체육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¹⁸⁾.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 남북 체육회담 또는 남북 체육교류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스포츠회담 또는 스포츠교류란 말을 쓰면서 혼선이 생기고 있다¹⁹⁾.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 유지를 위해 ‘남북

18) 현재 대한체육회를 영문으로는 KOC(Korean Sports and Olympic Council)라고 부르고, 국민체육진흥공단도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으로 영문명으로 쓰며 체육과 스포츠를 동의어로 쓰기도 한다. 최근 대한체육회에 바둑과 e스포츠가 산하단체로 가맹되면서 체육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되었고,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이 한국스포츠개발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선진국과 유엔(UN) 등에서는 스포츠가 체육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외래어인 스포츠는 디자인이나 미디어처럼 학문 이름에서도 널리 쓰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 하웅용(2000), 「남북한 스포츠회담사」, 국제학술대회자료집, 20-29. 김범식(2009), 베를린장벽붕괴 20돌, 남북 스포츠교류의정서 시급, 스포츠동지, 스포츠개발원. 그동안 남북 체육회담이란 이름으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그리고 단일 종목인 축구, 농구, 탁구 등의 스포츠행사를 둘러싼 단일팀 구성의 인원비율이나 호칭, 단복, 훈련장소 등을 두고 논쟁을 펼쳤다. 이러한 논쟁의 대부분은 스포츠행사와 관련한 회담이기에 남북 스포츠교류가 맞

스포츠회담'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동안 남북 스포츠회담은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세계대회에서 남북이 하나의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다. 특히 올림픽참가와 관련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은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행사가 아니고 평화를 상징하는 인류의 제전이고, 국제평화유지와 협력의 촉진을 위한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올림픽은 각 나라의 문화와 가치가 비교되는 국력의 경연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올림픽참가와 관련한 남북 스포츠회담은 그 어떤 회담보다도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올림픽 외에 남북한 간에는 아시안게임, 각종 세계대회, 스포츠축전, 스포츠 경기중계방송, 학술대회 등 다양한 남북 스포츠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남북 스포츠교류를 위해 상호 간의 협력이 필요한 실무회담도 이루어진다. 회담의 주체는 정부만이 아니라, 체육단체, 지방자치단체, 방송 매체, 학술단체 등 민간에 의한 교류협력도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교류의 경우에는 자료가 극히 제한된다는 점에서 남북 스포츠교류의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제한점이 따른다.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나 통일부의 자료에서는 남북 체육교류와 남북체육회담이란 용어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북한에서는 용어에 있어서 스포츠보다는 '체육'을 선호할 것이 분명하고 우리도 그동안 그렇게 썼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Ⅲ. 남북 스포츠교류 관련 신문분석

1. 남한신문(조선일보, 한겨레)

남한의 언론은 크게 보수와 진보의 성향으로 나누어진다. 남한의 언론은 북한의 언론과 다르게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각 언론사의 성향 즉 보수성향인가 진보성향인가에 따라 정부 정책에 공감 또는 비판하는 기사수나 내용 구성을 하지만, 주로 신문을 구독하는 대중들의 관심(신문판매부수, 광고)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독자들 역시 자신의 성향에 따라 신문을 선택한다. 따라서 2002부산아시안게임,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진행된 남북 스포츠교류에 대해서도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기사 수나 내용 구성에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북 스포츠교류에서 중요했던 국제스포츠 대회 중 하나인 2002부산아시안게임,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남한의 신문들을 조사하였다. 남한의 신문 중에 대표적인 보수언론으로는 조선일보로 진보언론으로는 한겨레²⁰⁾로 선별하여 이 시기에 보도되었던 남북 스포츠교류 관련 기사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회와 관련된 기사들은 보수언론이나 진보언론 관계없이 관심이 집중되어 많은 기사들이 보도되었다. 대부분 기사에서는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는 다양한 경기종목에서의 결과들(참가국의 경기결과), 응원단, 화재의 선수(한국 선수, 외국 선수), 에피소드 등 비교적 객관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나 남북 스포츠교류 및 북한과 관련된 기사의 경우, 객관적인 경기결과, 사건 보도 이외에도 언론사의 성향이 드러나는 기사들이 종종 있었다. 다시 말해, 언론사가 보수성향인가 진보성향인가에 따라 남북스포츠 관련된 기사 수나 내용 구성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2부산아시안게임,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언론사의 성향에 차이가 나는 남북 스포츠교류 관련 기사 분석을 하였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대회에서 남북

20) 주석 3. 4의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설명 참조

스포츠교류와 관련된 남한 언론의 기사 지면들만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남한 언론의 경우는 로동신문의 획일적인 6면의 지면 구성과는 다르게 다양한 지면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에 앞서, <표 3>은 조선일보, 한겨레의 기사 지면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조선일보, 한겨레 기사지면 특징

지면 ²¹⁾	구성	주요내용
스포츠	스포츠, 레저, 연예 관련	국내, 국외 스포츠 이슈
정치	정부 행정 관련	국가와 지역의 중요한 결정 사항
사회	사회적 이슈	우리나라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
오피니언	사실에 의거하는 의견 논쟁	사설, 단평, 컬럼, 투고, 캠페인 등
경제	경제문제	경제산업, 생활경제, 부동산 등
국제	해외에서 벌어지는 사건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문화	공통의 생활 방식	의식주,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등
종합	헤드라인, 가장 중요한 뉴스	하루를 대표하는 뉴스의 집합체

이후에 분석내용을 살펴보겠지만, 대회 관련한 남북 스포츠교류 기사는 스포츠, 정치, 사회, 오피니언, 경제, 국제, 문화 종합 등 8면에서 고루 걸쳐 게재된다.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스포츠면을 제외하고 다른 지면들에서 남북 스포츠교류를 보도하는 언론사들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그 구성을 달리할 것이라는 유추를 해볼 수 있다. 더하여 본 연구진은 이를 통해 남한 언론의 남북 스포츠교류에 대한 정치적 시각을 이해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 스포츠교류에 대한 남한 언론들의 시각을 이해하기 위해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지면별 기사수와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한편, <표 4>는 대회와 관련한 남북 스포츠교류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기사수와 기사 지면을 정리한 것이다.

21) 본 논문에서는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에서 2002부산아시안게임,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가 있는 지문만 특징을 정리하였다.

표 6. 2002부산아시안게임,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조선일보, 한겨레 기사 수와 지면

국제대회 구분	2002부산아시안게임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8평창동계올림픽		합계(%)
	조선일보	한겨레	조선일보	한겨레	조선일보	한겨레	
성향	보수	진보	보수	진보	보수	진보	
스포츠면	7	9	16	5	34	60	131(30%)
정치면	-	29	29	24	41	79	202(49%)
사회면	5	-	4	4	3	6	22(6%)
여론면	2	-	3	8	12	5	30(8%)
경제면	-	4	-	1	-	2	7(2%)
국제	-	-	-	1	-	4	5(1%)
문화면	-	-	-	-	1	2	3(0%)
종합면	9	-	1	-	6	-	16(4%)
합계	23	42	53	43	97	158	416(100%)
	조선일보		173	한겨레		243	416(100%)

위의 표를 보면, 2002부산아시안게임,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남북 스포츠교류 기사의 수가 보수언론인 조선일보가 173건, 진보언론인 한겨레가 243건으로 종합됐다. 결과적으로 수치상 보수언론보다 진보언론에서 남북 스포츠교류에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히 남한 언론에서의 남북 스포츠교류에 대한 시각을 이해하기 위해 기사 수와 더불어 지면 구성도 살펴보았다. 남한 언론들은 대회들이 국제적인 스포츠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초점이 된 스포츠교류와 관련된 기사들을 정치면에 202건(49%), 스포츠에 131건(30%)으로 보도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체 80%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스포츠면보다 정치면에 오히려 남북스포츠 관련 기사가 많다는 분석이 진행됐다. 이러한 결과는 남한의 언론들은 보수성향인가 진보성향인가는 관계없이 남북 스포츠교류에 대해서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즉, 남한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남북 스포츠교류는 단순히 스포츠적 가치만을 추구할 수 없는 부분이며, 남북 정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

사하고 있다.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남북 스포츠교류에 관한 시각을 분석하기 위해 대회와 관련한 기사 중에 제목과 내용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참고로 본 연구분석에서 기사 제목에 무게를 둔 이유는 신문에서 기사의 제목은 하나의 요약된 기사이고 압축된 사건의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제목은 기사 전체를 기술하는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이다(신문편집, 2001)²²⁾. 이에 <표 6>의 조선일보와 한겨레 기사 중에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시각이나 정치적인 입장이 드러나는 제목들을 선별하여 <표 7>와 <표 8>을 작성하였다. <표 7>와 <표 8> 기사 중에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시각이 특징적으로 나타난 제목을 중심으로 선별²³⁾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7>를 살펴보면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에서는 2002부산아시안게임에서는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았으며, 2014인천아시안게임에서는 긍정적인 기사 제목보다는 부정적인 제목이 더 많이 나타났다. 남한 주최의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들이 대거 참여한 유사한 국제스포츠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에서는 서로 다른 시각에서 이와 관련된 기사들을 보도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가령 2002부산아시안게임 관련 기사 제목인 ‘북 아시안게임 참가에 남북기금 21억 지원’, ‘남·북 스포츠협약 이른 시일 내 체결’ 등 남북관계 개선이나 스포츠협약 등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도하였다. 이에 비해 2014인천아시안게임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드러나는 ‘北, NLL 포격 다음 날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北 “南, 아시안게임 정치적 악용 말라”’, 등의 북한의 부정적 입장을 보도하는 한편, ‘[박두식 칼럼] 對北 정책이 선무당들의 '굿판'이 되어선 안 된다’[탈북여성 1호박사 이애란의 북한통신 20편] 북한 ‘미녀응원단’의 실체와 내막’ 등의 언론사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하는 기사들도 등장하였다. 반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스포츠교류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두 가지 시선이 동시에 있었다.

22) 신문편집, 한국편집기자회, 2001

23) <표 9>와 <표 10>의 기사목록에서는 부산아시안게임,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한 스포츠 동향, 경기결과, 단순 사실 기사 등은 제외함

표 7. 보수언론의 성향이 드러나는 조선일보 기사 제목 (금: 긍정적 / 부: 부정적)

내용 국제대회	구분	날짜	제목	지면
2002부산아시안게임	금	2002.10.12	북 아시안게임 참가에 남북기금 21억 지원	사회
	금	2002.10.09	남·북 스포츠협약 이룬 시일 내 체결	스포츠
2014인천아시안게임	금	2014.10.04	남북 고위대표단 환담 축구 얘기로 화기애애	스포츠
	금	2014.10.04	류길재·北대표단 회동...인천 AG 역도·축구 거론 '웃음꽃'	스포츠
	금	2014.10.05	김무성 "北 고위급 대표단, 생각 보다 훨씬 개방적"	정치
	금	2014.10.06	[北 최고위 3인 방문] 北 8일 軍人 5종선수권대회도 참가... 남북 체육교류 훈풍	정치
	부	2014.05.24	北, NLL 포격 다음날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정치
	부	2014.07.08	군사훈련 과시하던 北 "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	스포츠
	부	2014.07.23	[탈북여성 1호박사 이애란의 북한통신 20편] 북한 '미녀응원단'의 실체와 내막	여론독자
	부	2014.08.04	北 "南, 아시안게임 정치적 악용 말라"	정치
	부	2014.09.01	北 "인천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 무산 책임은 南에 있다" 또다시 주장	정치
	부	2014.10.04	인천 AG 부위원장 "차대통령 대회 끝나기 전에 잔물"	스포츠
	부	2014.10.08	[박두식 칼럼] 對北 정책이 선무당들의 '굿판'이 되어선 안 된다	여론독자
	부	2014.09.05	통일부 "北응원단 와달라고 하진 않을 것" 김무성 "좋은 기회 놓치는 정부, 참 無能"	정치
2018평창동계올림픽	금	2018.02.26	[시론] '평창 後 한반도' 위기를 평화로 바꾸는 법	사설칼럼
	금	2018.02.14	김정은 "남측이 온갖 성의 다해 인상적" 만족감	정치
	부	2018.02.08	[사설] 北 이번엔 '김여정' 카드로 대북 제재 조롱	사설칼럼

한편, 보수성향인 조선일보와 달리 진보성향인 한겨레의 경우 남북 스포츠 교류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았다. <표 8>은 진보언론의 성향이 드러나는 한겨레 기사 제목을 정리한 것이다.

표 8. 진보언론의 성향이 드러나는 한겨레 기사 제목 (금: 긍정적)

내용 국제대회	구 분	날짜	제목	지면
2002부산아시안게임	금	2002.09.07	오늘 통일축구대회 /“통~일축구, 승부보다 화합계기로”	스포츠
	금	2002.09.09	[취재파일]'희망' 뿌린 통일축구	스포츠
	금	2002.09.24	부산아시안게임 도착표정/북 선수단 “부산시민 환영에 감사”	정치
	금	2002.09.26	아시아경기대회 D-3 좌담회/“남북 하나되고 아시아 어우러진 화합축제로”	정치
	금	2002.09.30	아시아경기대회/‘하나된 남북’ 그순간-‘통일의 불’ 점화 “영원히 타올라라”	정치
	금	2002.10.04	승패 떠난 남북 '우리는 하나'	스포츠
	금	2002.10.09	남북 체육협약 추진/교류 올림픽위 단일화	스포츠
2014인천아시안게임	금	2014.10.05	황병서, 부드럽고 분위기진중, 최룡해, 달변... 분위기 주도, 김양건, 다양한 이들과 대화	정치
	금	2014.10.04	북 최고 실세들 방문, '1 석 3 조' 노렸다	정치
	금	2014.10.04	[전문] 남북 고위급, 오찬회담 앞서 '티타임'서 화기애애	여론 독자
	금	2014.10.05	김무성 대표 “북한 대표단, 생각보다 훨씬 개방적”	정치
	금	2014.10.05	황병서 “이번에 오솔길 냈는데 앞으로 대통령 열자”	정치
	금	2014.10.05	박 대통령 전향적 변화할까...5·24 조치 해제가 '가능자'	정치
	금	2014.10.06	“우리도 북한에 통 크게 답하자” 여당서도 '5·24 조치 해제' 힘 실려	정치
2018평창동계올림픽	금	2018.02.08	[한겨레 사설] 평창 너머 '평화의 길' 여는 올림픽 되길	사설 칼럼
	금	2018.02.09	외신 “역사적 악수” “평화의 희망” 평창 개막식 타전	국제
	금	2018.02.11	첫 국제무대 나온 김여정, '실세 특사'로 절제된 메시지	정치
	금	2018.02.17	평화가 오나 불...문 대통령의 열 달, 남북 겨울 녹인 10 장면	정치

보수 언론<표 7>와 진보 언론<표 8>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2014인천아시아게임을 제외한 2002부산아시아게임,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진행되는 남북 스포츠교류에 대해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양쪽 모두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보수언론은 진보언론에 비해서 남북 스포츠교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도 있다. 특히 남한의 정권이 진보(북한 포용)인가 보수(대북제재)인가에 따라 남북 스포츠교류와 관련된 북한 기사들의 견해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2014인천아시아게임으로 부정적인 견해의 기사가 많았다. 이는 남한 정권에서 보수성이 짙을 때 보수언론에서는 남북 스포츠교류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남북 스포츠교류에 대해 서로 다른 성향의 기사 보도를 한 것은 2014부산아시아게임 이외에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나타났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서는 2014부산아시아게임과 비교해 남북 스포츠교류 관련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입장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일부 기사에서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에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기사를 보도하였다. 예를 들자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김여정이 방남한 사건 보도이다. 조선일보에서는 “[사설] 北 이번엔 '김여정' 카드로 대북 제재 조롱”이라는 사실을 보도한 반면, 한겨레에서는 “첫 국제무대 나온 김여정, ‘실세 특사’로 절제된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다. 같은 사건이지만, 조선일보에서는 부정적으로 한겨레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도하였다.

한편,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남한의 언론에서는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남북 스포츠교류와 관련된 기사들이 증가하였다. <표 9>과 <표 10>은 평창올림픽 이후 조선일보와 한겨레 기사 제목을 정리한 자료이다. 먼저,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9.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조선일보 기사 제목

국제대회	내용	날짜	제목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18.04.03	[스포츠 브리핑] 올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입장 추진
		2018.04.23	北 '남북대화 라인' 힘싹고 군부는 힘빼고
		2018.04.30	"판문점 선언, 10·4(노무현·김정일)의 확대 증보판"
		2018.05.04	여자탁구, 27년만에 남북 단일팀
		2018.05.15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1~2종목 그칠 듯
		2018.06.19	평양서 내달 4일 통일농구경기
		2018.07.06	통일농구 대결, 한국 남자팀 20년간 4전 4패
		2018.07.16	내일 개막 코리아오픈 탁구, 남북 단일팀 구성
		2018.08.03	[2018 아시안게임 D-15] 첫 호흡 맞춘 여자 농구 단일팀 "우승 위해 파이팅!"
		2018.08.09	유소년 축구팀·관계자 150여명 내일 방북
		2018.09.03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1·은1·동2... 코리아(단일팀) 28위
		2018.09.28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입장
		2018.09.28	남북 유도 단일팀, 세계선수권 동메달
		2018.10.01	박원순 "北, 시로 교육...선진국 따라잡을 역량 충분"
		2018.10.09	"농구 외국인 선수 연봉·신장제한 풀어야"
		2018.10.12	수원서 펼쳐지는 한국 스포츠 희로애락
		2018.10.14	고위급회담 대표단에 '철도·도로 담당 차관' 포함
		2018.11.02	남북, 오늘 개성서 체육회담... 2032 올림픽 공동 개최 추진 논의
		2018.11.02	南北,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 의사 서신 IOC에 보낸다
		2018.11.03	내년 1월 男핸드볼 세계선수권 '남북 단일팀' 출전 합의
		2018.11.05	[태평로] 제 목소리 못 내는 한국 스포츠
		2018.12.14	남북체육회담 대표단 출발...도쿄올림픽 단일팀 논의
		2018.12.15	남북, IOC와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협의
		2018.12.19	농구광 김정은, 농구를 國技 만드나... 노동신문 "전사회적 열풍 일으키자"
		2018.12.22	"AG 준우승 아쉬워... 중국과 다시 싸우면 이길것"

다음으로 한겨레의 기사 제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겨레 기사 제목

내용 국제대회	날짜	제목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18.04.01	바흐 만난 김정은 “북, 도쿄·베이징 올림픽도 참가”
	2018.04.02	남북, 8월 아시안게임 개막식 공동 입장 추진
	2018.05.01	평창 ‘단일팀 감동’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까지
	2018.06.18	남북 통일농구 15년만에 재개…7월 평양·가을 서울 개최
	2018.07.03	‘농구광’ 김정은 깜짝 등장? 15년만에 남북 통일농구 경기
	2018.07.03	‘통일농구’의 시작은 옥류관에서
	2018.07.06	남북, 평양서 심야 체육회담…남 개최대회 북 참가 논의
	2018.07.06	7월 탁구·8월 사격…남북 스포츠교류 가속
	2018.07.10	체육회장 “코리아하우스 북한과 공동운영 협의”
	2018.08.15	“평창이 뜬 남북화해 물꼬 아시안 게임서 더 넓어질 것”
	2018.08.18	도종환 장관 “내년 100회 전국체전 남북 공동행사 추진”
	2018.08.19	“코리아 단일팀, 체육 넘어 모든 분야에서 두손 굳게 맞잡길”
	2018.08.22	도종환 장관, 북한에 남북체육회담 정례화 제의
	2018.08.27	카누 단일팀 “체육부문 대북 제재 완화해달라”
	2018.09.19	‘2032년 한반도 올림픽’ 멀다고 하면 안되겠구나
	2018.09.20	박선숙 등 11인 ‘9월 평양선언 지지 결의안’ 발빠른 발의
	2018.09.20	남북 단일팀, 한껏 무르익었다
	2018.09.27	장애인 스포츠 사상 첫 남북 단일팀 구성
	2018.10.02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사업 본격 시동
	2018.10.09	단일팀 ‘코리아’ 사상 첫 메달 시상식 취소, 왜?
	2018.10.10	장애인 스포츠 사상 첫 단일팀 시상대 올랐다
	2018.10.11	남북 탁구단일팀, 일본 꺾고 2연승
	2018.10.15	남북, 11월 말~12월 초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합의
	2018.10.25	평양 ‘옥류관’ 남쪽서 맛보나…경기도, 북쪽과 협상 창구 개설
	2018.10.25	북한 유소년 축구단 5회 아리컵 위해 방남

2018.10.29	“평양 광장서 ‘투캅스’ 틀고, 차범근 축구교실도 열고 싶어요”	
2018.10.31	2일 개성연락사무소서 남북체육분과회담	
2018.10.31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체계 구축 잔걸음	
2018.11.02	남북,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의향 서신 IOC에 전달키로	
2018.11.06	“북한의 교육관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2018.11.22	‘파이팅’ 대신 ‘힘내라’...스포츠 용어 바로잡기 포럼 개최	
2018.11.27	남자핸드볼 세계선수권에 ‘남북 단일팀’ 뒀다	
2018.12.10	남북, 14일 체육회담...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 논의	
2018.12.14	남북, 2032년 여름올림픽 공동 개최 본격화	
2018.12.17	체육기자가 뽑은 2018 스포츠 톱뉴스 ‘평양올림픽 성공 개최’	
2018.12.19	[유레카]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보수언론<표 9>과 진보언론<표 10>을 종합해 보면, 각각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현재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가고 있으며, 남북 스포츠교류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남한의 언론 역시 이를 기대하고 있다. 즉 남북 스포츠교류는 남북관계에 따라 변화되고 있으며,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남한의 보수언론이나 진보언론 모두 국제스포츠대회에서 진행되는 남북 스포츠교류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남북 스포츠교류를 통해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신문사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달랐다. 정리하면, 국제스포츠대회에서 진행되는 남북 스포츠교류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보도하지만, 이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때는 긍정적, 부정적인 반응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남한의 정권이 보수적인 성향일 때 뚜렷하며, 남한의 언론사들 역시 남북 스포츠교류를 스포츠 그 자체보다는 정치와 연결되어 있다.

2. 북한신문(로동신문)

북한의 로동신문은 정권의 대변지로 북한의 대표적인 신문이다. 조선대백과 사전에 따르면, 신문의 사명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것”에 있고, 그 기본 임무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고 전당과 인민을 김정일 동지의 주위에 묶어 세우며 당대열의 정치사상적 통일 보장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통일교육원, 2013: 184).

로동신문의 기사는 북한 정권이나 목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북한 정권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주요 도구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2부산아시안게임,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8평창동계올림픽으로 한정하여 남북 스포츠교류에 대한 로동신문의 기사 분석을 통해 북한 정권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로동신문은 정권의 입장과 목적에 따라 기사에 대한 보도수와 지면 편성에 영향을 준다. 로동신문은 6면이 기본이며, 지면마다 특징과 중요도가 다르다. 이에 로동신문에서 2002부산아시안게임,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들의 수와 주로 어느 지면에 편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북한 정권의 남북 스포츠교류에 대한 관심도와 참가목적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표 11>은 로동신문 지면의 특징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표 11. 로동신문 지면의 특징

구분 지면	구성 ²⁴⁾	주요내용
1면	정치: 북한 고위층 동정, 찬양 등과 정책관련사설과 정론	수령우상화, 수령의 동정 및 사진 사설, 정론 등
2면		
3면	경제: 각지 경제 관련 소식	당 지침 실행의 모범적 구체적 사례
4면	사회: 북한 내 사회·문화·체육 소식	사회문화체육 관련 구체적 사례를 통한 북한체제 선전
5면	남한: 남한 및 통일관련 기사	남한 비방 및 통일(수령우상화, 북측 의 통일입장, 남한비방)
6면	국제: 국제 뉴스	미국 및 남한 비방, 2018년 1-3월 일본 비방

*출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2013: 184), 로동신문 분석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로동신문에서 스포츠면은 4면에 해당한다. 4면은 주로 북한선수들의 국내외의 경기결과, 각종 스포츠행사 관련 내용을 편성한다. 따라서 대회와 관련한 기사는 4면에서 가장 많이 보도되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남북 스포츠교류에 대한 목적이나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면인 4면의 기사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편성이 달라지는 1면과 6면의 기사 내용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동신문에서 1면은 가장 중요한 면으로 주로 정치나 지도자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따라서 남북 스포츠교류와 관련된 기사가 1면에 편성되었을 경우는 북한 정권차원에서 주요시하거나 관심이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6면은 주로 북한 국제뉴스로 주로 편성을 하지만, 남북 스포츠교류가 5-6면에 편성되었을 경우는 북한 선수들의 좋은 경기결과가 많았거나 국제대회에 대해 부정적인 북한 정권의 입장이 반영됐을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남북 스포츠교류나 대회와 관련한 기사가 스포츠 지면인 4면을 제외한 어느 면에 편성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도 기사 수만큼 중요하다. <표 12>은 2002부산아시안게임,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8평창동계올림픽 로동신문 지면 구성 편성과 그 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12. 2002부산아시안게임,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8평창동계올림픽 로동신문 지면 분석

국제대회 ²⁵⁾ 지면	2002 부산아시안게임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8 평창동계올림픽	합계 (건)	비율 (%)
1 면	2	10	8	20	19
2 면	-	1	5	6	6
3 면	-	1	-	1	1
4 면	20	31	11	62	60
5 면	5	8	-	13	12
6 면	-	2	-	2	2
합계	27	53	24	104	100

24) 통일교육원(2013: 184-5)의 내용 재구성

25) 2002년(1월-12월), 2014년(1월-12월), 2018년(1월-9월)까지 기사

위의 표를 보면, 2002부산아시안게임,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8평창동계 올림픽 관련 로동신문 기사 총 104건 중에 2014인천아시안게임 관련 기사가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사 수로 본다면 2014인천아시안게임이 북한 정권에서 가장 관심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기간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로 남북 스포츠교류 역시 감소하고 있던 시점이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이후 남북 스포츠교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시점에 2014인천아시안게임에 관한 로동신문의 기사가 다른 두 국제스포츠대회보다 많았다는 점은 이례적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과 북한 정권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 참가한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동신문의 기사 수와 더불어 지문분석도 같이 진행해야 한다.

<표 12>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회 관련 기사들은 주로 스포츠면인 4면에 보도되었으며, 104건의 기사 중에 62건(60%)으로 가장 많이 편성되었다. 그리고 2014년 아시안게임 관련 기사도 스포츠면인 4면에 많았으며, 북한 선수들의 경기결과가 좋은 날은 4면에 이어 5면까지 보도한 것으로 보아 결국 53건의 기사 대부분이 북한 선수들의 경기결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남북 간의 정치적 관계나 남북 스포츠교류와는 무관하게 북한 선수들의 경기결과만을 보도하였다. 2014인천아시안게임 관련 로동신문의 4면 기사보다 2018평창올림픽게임 관련 기사가 스포츠면인 4면에 11건을 기록한 건 이례적이다. 과거에 북한 선수들이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경우는 1964년 인스브루크동계올림픽 3000m 스피드경기에서 한필화 선수의 은메달과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에서 황옥실 선수의 쇼트트랙 500m 동메달뿐이다. 이에 로동신문에서 다른 국가에서 진행되는 동계올림픽에 관한 기사는 보도되지 않는다. 북한과 친분이 있는 러시아의 소치동계올림픽의 경우 역시 기사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개최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된 기사가 비록 스포츠면이라 일지라도 4면에 11건이나 보도된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4면의 기사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11건에 해당하는 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다.

표 13.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로동신문 4면 기사 제목

내용	날짜	제목	지면
국제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18. 1. 8	새로 건설된 강계스키장 개장식 진행	4
	2018. 1. 27	남측 선발대 우리측 지역 방문	4
	2018. 2. 3	북남스키선수들 마식령스키장에서 공동훈련	4
	2018. 2. 6	우리 예술단 평양출발	4
	2018. 2. 7	우리 예술단 남조선의 목호항 도착	4
	2018. 2. 8	우리 민족 올림픽위원회 대표단 평양 출발	4
	2018. 2. 11	북남태권도인들 합동시범 출현진행	4
	2018. 2. 13	우리 예술단 평양 도착	4
	2018. 2. 15	북남태권도인들의 합동시범출연 서울에서 진행	4
	2018. 2. 27	우리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평양도착	4
	2018. 3. 16	우리 민족장애자 올림픽위원회 대표단 평양도착	4

<표 13>을 살펴보면 과거 로동신문의 4면 기사들과 다르게 북한선수들의 경기결과와 관련한 기사는 없다. 이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다른 동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북한 선수들의 경기결과는 우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동신문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된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였으며, 4면의 기사 대부분은 남북 스포츠교류와 관련된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지도부가 남북 스포츠교류나 남북관계에 관심이 많았으며, 과거와 비교해 스포츠교류를 호의적인 태도로 견지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스포츠면인 4면 다음으로 2002부산아시안게임,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가 많이 편성된 부분이 정치(고위층 동정, 찬양)면인 1면이다. 로동신문 전체 기사 104건 중 20건으로 전체 19%를 차지한다. 이는 남북 스포츠교류가 일반적인 스포츠교류와 달리 정치적인 관계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로동신문은 남한의 언론들과는 달리 상대국 중 남한 선수들의 경기결과와 관련된 보도²⁶⁾는 없었던 것이 특징 중 하나이다.

26) 북한 선수들이 남한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좋은 성과(승리)가 있는 것만 선별하여 보도한

대회 관련 로동신문의 기사에서 북한 선수들의 경기결과 이외의 다른 기사 내용분석은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북한 정권이 2002부산아시안게임,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목적과 남북한 관계 혹은 남북 스포츠교류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 12>의 기사 중에 북한 선수들의 경기결과 이외의 보도기사 제목을 <표 14>로 정리하였다.

표 14. 2002부산아시안게임, 2014인천아시안게임 관련 기사 제목

내용	날짜	제목	지면
국제대회 2002 부산아시안게임	2002. 10. 17	인기를 독차지한 응원단	4
	2002. 10. 14	북의 응원단 인기의 비결 남조선방송이 보도	5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4. 8. 30	괴뢰패당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응원단이 나가는것을 가로막은데 대해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할수 없다	4
	2014. 9. 3	응원단 파견은 왜 성사되지 못했는가	5
	2014. 9. 15	응원단파견을 악랄하게 모독한 괴뢰군부패	5
	2014. 9. 23	체육경기장을 화약내로 뒤덮는 도발광대	6

<표 14>를 살펴보면 북한 선수들이 참여한 같은 남한 주최의 아시안게임이지만 2002부산아시안게임과 2014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로동신문의 보도 경향은 다르다. 즉 남북관계, 남북 스포츠교류에 대한 북한정권의 입장이 달랐음을 <표 14>의 로동신문 기사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2부산아시안게임과 2014인천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의 응원단 파견 관련한 로동신문의 기사를 통해 북한 정권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호전 상태였던 2002부산아시안게임 때는 응원단에 대한 긍정적인 남한의 반응을 로동신문 4면과 5면에 보도한 것과 달리 2014년에는 같은 지면에 부정적인 제목으로 구성하였다. 응원단 파견의 문제를 남한으로 인한 것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로 보도하였다. 특히 2014인천아시안게

다. 북한의 로동신문은 남한과 다르게 다른 국가의 선수들의 경기결과는 거의 보도하지 않는다. 이는 체제선전과도 연결된다.

임 기간이었던 로동신문 2014년 9월 23일자 ‘체육경기장을 화약내로 뒤덮는 도발광대’라는 6면의 기사내용은 북한 정권이 남북 스포츠교류나 남한 정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시사한 것이다. 로동신문에서 6면은 주로 남한과 미국 비방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지면으로 스포츠 관련 기사는 매우 드물다. 이처럼 북한 정권이 2014인천아시안게임 시기에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남북 스포츠교류 역시 감소하고 있던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에 대거 참가하고 이에 따라 로동신문 보도 역시 기사 수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북한 정권의 모순적인 태도는 남북한 관계나 남북 스포츠교류에서 보다 북한 선수들의 국제경기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 선수들은 올림픽보다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경기결과를 많이 내며, 다른 국제대회보다 아시안게임이 경기종목 역시 많다. 각종 국제대회경기에서 획득한 우수한 성적(메달획득)은 지도자 이상화나 체제선전에 활용하고 있었다. 아래 <표 15>은 2002부산아시안게임에서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Jakarta Palembang)까지 남북한 선수의 아시안게임 남·북한 순위 및 메달 집계 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15. 2000년대 이후 남북한 아시안게임 남·북한 순위 및 메달 집계 수

국제대회	내용	남한/북한	순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합계
14회 2002부산아시안게임	남한	2	96	80	84	260	
	북한	9	9	11	13	33	
15회 2006도하아시안게임	남한	2	58	53	82	193	
	북한	16	6	9	16	31	
16회 2010광저우아시안게임	남한	2	76	65	91	232	
	북한	12	6	10	20	36	
17회 2014인천아시안게임	남한	2	79	70	79	228	
	북한	7	11	11	14	36	
18회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남한	3	49	58	70	177	
	북한	10	12	12	13	37	

<표 15>에서도 나타나듯이 북한선수들은 올림픽보다 아시안게임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하고 있었으며, 2014인천아시안게임 역시 36개의 메달로 경기결과가 좋았다. 특히 2014아시안게임이 있을 당시에는 김정은(2011. 11)이 집권한 지도 2년 정도 지난 시점으로, 지도자 교체와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적 혼돈이 가중되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 초기부터 ‘체육강국건설’와 ‘김정일 애국주의’²⁷⁾ 그리고 ‘김일성-김정일주의’ 등을 내세워 경제와 집권층의 안정화를 도모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북한정권의 입장에서 남북관계보다도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들이 참여하여 많은 수의 메달획득을 통해 체제선전과 지도자 우상화 작업이 우선적이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 초기부터 전면으로 내세운 ‘체육강국건설’은 대중스포츠보다는 엘리트 스포츠 중심으로 국제대회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 이는 로동신문 2014월 1일 20자에서도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체육인들이 세계적인 패권자가 될 높은 목표를 가지고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며 체육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체육의 대중화 방침을 관철하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야 합니다”를 찾아볼 수 있었다. 즉 2014인천아시안게임은 남북 스포츠교류 차원이라기 보다 북한 선수들의 경기결과를 지도층의 안정화와 체제선전에 활용이 우선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로동신문의 보도는 좋은 성과를 거두어 사회적으로 애국심을 강조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북한 선수들의 국제대회에서의 좋은 성과는 새로운 지도자의 업적이자 힘으로 과시되며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한편, 2014인천아시안게임에서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었지만,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선수들의 메달획득과 이를 선전하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북한 선수들의 경기결과에 따라 로동신문의 기사 수도 다른 대회에 비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회 관련 로동신문 기사 중 정치면을 주로 다루고 있는 1면에

27)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추상화(김근식, 2014: 66)한 것이다. 김정일의 선군사상 역시 '주체사상'에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는 체육정책 역시 여전히 '주체체육'이라 할 수 있겠다(현주·안지호, 2015: 157).

게제된 기사를 살펴보았다. <표 16>는 2002부산아시안게임, 2014인천아시안 게임,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로동신문의 1면 기사 중에 남북 스포츠교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사와 북한선수들의 경기결과를 보도한 내용을 일부 선별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16. 2002부산아시안게임,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8평창동계올림픽 로동신문 1면 기사 제목

국제대회	내용	날짜	제목	지면
2002 부산아시안게임		2002. 10. 12	제 14 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 여자축구선수들 단연 영예의 제 1 위 쟁취	1
		2002. 10. 14	제 14 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여자마라손 경기에서 우리나라 함봉실 선수 영예의 제 1 위 쟁취	1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4. 7. 20	제 17 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남자축구검열 경기를 지도하시었다.	1
		2014. 8. 1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 17 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여자 축구검열 경기를 지도하시였다	1
		2014. 10. 6	주체조선의존엄과국력을떨친자랑스러운 아들딸들을열렬히축하한다	1
		2014. 10. 6	제 17 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특기할 성과를 이룩한 우리 선수들	1
		2014. 10. 25	제 17 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들과 감독들에게 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인민체육인칭호와 국기훈장 제 1 급을 수여함에 대하여	1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18. 2. 1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 23 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개막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출발	1
		2018. 2.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 대표단 남조선 도착	1
		2018. 2.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 대표단이 청와대에서 남조선대통령을 만났다	1
		2018. 2.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 남조선대통령과 여자빙상호케이 북남단 일팀 경기관람	1

<표 16>을 보면, 북한선수들의 성적과 상관없이 대회에서 로동신문의 1면 기사가 가장 많았다. 특히, 같은 아시안게임 경우에서도 김정일 정권에 비해

김정은 정권에서 로동신문의 기사 수뿐만 아니라 1면의 기사도 더 많았으며, 단순 경기결과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직접 북한의 축구대표팀 평가전까지 관심을 한 것으로 나온다. 이는 음악정치를 강조하는 김정일 정권보다 체육강국 건설을 강조하는 김정은 정권에서 남북 스포츠교류뿐만 아니라 스포츠 자체에 관심이 더 많았음을 시사한다.

한편, <표 16>을 보면, 아시안게임보다 메달획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동계올림픽에 관한 기사가 로동신문에서 중요도가 높은 1면에 기사가 8건²⁸⁾이 나 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다. 기사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북한 선수들의 경기결과나 체제선전은 없었다. 이는 북한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로동신문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1면 기사가 많았으며, 주로 고위급 대표단의 동향으로 2002부산아시안게임이나 2014인천아시안게임에 비해 북한 정권에서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례적인 것은 로동신문의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1면과 2면(2018년 2월 10일자 2면, “김영남동지가 문재인대통령을 만났다”) 기사에서 남한 대통령의 사진을 크게 보도하였다.²⁹⁾ 이러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관한 로동신문의 기사 수와 지면 구성은 남북 스포츠교류뿐만 아니라 정치적 관계가 많이 호전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로동신문의 보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남북 스포츠교류와 관련 기사는 없었지만, 남북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남북정상 간의 회담 관련 내용을 과거와 달리 1면부터 4면까지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표 17>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정리한 것이다.

28) <표 9> 참조

29) 과거 로동신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기사는 남한과 미국 비방 란인 6면에서 부정적인 사진 게재

표 17.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정상회담 관련 기사 제목

국제대회	내용	날짜	제목	지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18. 5. 27	역사적인 제4차 북남수뇌상봉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또다시 상봉하시고 회담을 하시었다	1, 2
		2018. 9. 20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숙소를 방문하시고 제2일회담을 하시었다	1,2,3
		2018. 9. 21	민족사에 특기할 역사적사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시었다	1,2,3,4
		2018. 9. 19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대통령과 일행 도착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1,2,3,4,5

비록 정상회담 이후 1회에만 이와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지만, 과거와 달리 남한 대통령의 사진이 크게 보도되었으며, 1면부터 4면까지 구성하였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의 지도층 역시 남북관계에 관심이 매우 높고, 호의적임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북한의 정권 대변지인 로동신문에서 2002부산아시안게임,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았다. 로동신문에서는 주로 북한 선수들의 동향이나 경기결과를 중심으로 보도하였지만, 이 부분을 제외한 기사들은 대부분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북한 지도층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었다. 로동신문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남북 스포츠 교류에 대한 북한 정권의 관심은 김정일 정권보다 김정은 정권에서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김정은 정권에서는 스포츠를 정치에 활용하는 측면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014인천아시안게임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로동신문의 보도성향에서 나타나듯이 같은 김정은 정권일지라도 남한의 정권이 보수인가(대북제제) 진보(대북포용)인가에 따라 국제대회에 대한 관심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스포츠와 정치와의 관계 정도가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로동신문 분석을 통해서 본 남북 스포츠교류는 북한 정권 역시 스포츠와 정치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남북 신문분석에 따른 남북 스포츠교류의 의미

남한에서 개최된 대회에 북한 선수들이 대거 참가함으로써 남북 정권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관심이 집중되었다. 남북의 언론에서 스포츠교류와 정치와의 관계, 그리고 남북 정권의 성향에 따른 남북 스포츠교류의 변화를 신문 기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북 언론사들은 신문의 성향과 관계없이 남한 주최의 국제스포츠대회에서 진행되는 남북 스포츠교류를 단순한 스포츠적인 관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남북한 신문 모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스포츠와 정치를 밀접하게 연결하여 보도하였으며, 정권의 성향에 따라 주요 지면의 기사 수가 변화되었다.

남한에서 2개의 아시안게임과 1개의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16년 동안에 남한은 김대중(1998.2.~2003.2.), 노무현(2003.2~2008.2.), 이명박(2008.2.~2013.2.), 박근혜(2003.2.~2016.12.), 문재인(2017.5~現) 정권으로 진보→보수→진보로 바뀌었다. 그리고 북한 역시 김정일(1994.7.~2011.11.)에서 김정은(2011.11.~現)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이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스포츠교류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남북관계의 변화나 스포츠교류는 북한보다는 남한 정권의 교체에 즉 정치성향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으며, 남북한 언론에도 이를 보도하는 신문수나 기사 지면 구성에도 반영되었음을 본 연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

남북한 언론들에서의 대회 기사들을 보면, 정치와 남북 스포츠교류는 스포츠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인 측면도 강하게 있음을 보도 수나 기사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경우는 2002부산아시안게임, 2014인천아시안게임보다 남북한 언론 모두 남북 스포츠교류와 정치와 관련하여 보도되는 경향이 나타났었다.

남한 언론의 경우 2002부산아시안게임과 2014인천아시안게임의 정치면에서 보수언론인 조선일보 0건과 29건 그리고 진보언론인 한겨레에서는 29건과 24건이었는데, 2018평창동계올림픽에는 조선일보 41건, 한겨레 79건으로 보도량이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이같은 현상은 로동신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로동신문의 정치면인 1면의 기사 건수로는 2002부산아시안게임과

2014인천아시안게임에서 2건과 10건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8건으로 오히려 2014인천아시안게임이 더 많았다. 그러나 로동신문의 기사에서 북한 선수들의 경기결과나 평가 같은 단순 사실 보도를 제외한다면 그 수치는 달라진다. 2002부산아시안게임과 2014인천아시안게임은 각각 0건이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8건으로 이례적으로 남북 스포츠교류와 정치 관련 기사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로동신문 스포츠 기사면인 4면의 경우 북한 선수들의 경기결과를 중심으로 기사보도가 편성된다. 그러나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북한선수들의 경기결과가 부진하였지만, 11건의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리고 11건 모두 북한선수들의 경기결과가 아닌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 합동시범 등 남북교류와 관련된 기사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즉 2002부산아시안게임과 2014인천아시안게임과는 달리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남북 스포츠교류가 스포츠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정치적인 측면 역시 강하게 나타났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스포츠교류적인 측면이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를 확립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남북관계는 남북한 신문들이 시사한 바와 같이 스포츠를 통해 정치적으로 호전되었다.

표 18.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스포츠교류

내용	날짜	내용	비고
국제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18.03.07	평창 동계패럴림픽	북한 선수단 24명 방남
	2018.05.04	2018스웨덴할름스타드세계탁구선수권대회	'KOREA' 단일팀 구성
	2018.07.04	남북통일농구대회	15년 만에 통산 네 번째
	2018.07.21	2018코리아오픈국제탁구대회	혼합복식 남북단일팀 우승
	2018.08.11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2018.08.18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 게임	남북한 선수단 공동입장, 단일팀
	2018.09.01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북한 선수단 14개 경기 종목 출전

	2018.09.20	2018세계유도선수권대회	혼성단체전 단일팀
	2018.10.30	세계태권도연맹(WT) 시범단 평양 방문공연	-
	2018.11.26	남북 씨름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공동등재	-
	2018.12.11	국제탁구연맹(ITTF) 2018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대회(12.13~16, 인천)	참가차 北 선수단 방남
	2018.12.22	제26회 세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	남북 남자핸드볼 단일팀 합동훈련 개시(독일)

<표 18>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스포츠교류를 정리한 것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구축되어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졌다. <표 19>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회담을 정리한 것이다.

표 19.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회담

내용	날짜	내용	비고
국제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18.02.27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실무회담 ³⁰⁾	-
	2018.04.27	2018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2018.05.26	남북정상회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채택
	2018.06.01	남북고위급회담	판문점 선언 이행
	2018.06.18	남북체육회담 ³¹⁾	-
	2018.08.13	남북고위급회담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
	2018.09.13	남북군사실무회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관련 문제 협의
	2018.09.18	남북정상회담(평양)	9월 평양공동선언
	2018.10.15	남북고위급회담	평양공동선언 이행
	2018.10.22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
	2018.10.26	남북장성급군사회담	-

	2018.11.02	남북체육회담 ³²⁾	-
	2018.11.07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	-
	2018.11.23	남북통신 실무회담	-
	2018.12.14	남북체육 분과회담 ³³⁾	-

결론적으로 남북한 주요 신문분석을 통해 남북 스포츠교류는 스포츠적인 요소도 있지만, 정치적인 요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남북 스포츠교류와 관련된 남북한신문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한반도의 정세 변화를 분석할 수 있었으며, 스포츠가 이에 기여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었다. 스포츠 그 자체의 가치와 의미는 일반인들도 쉽게 받아들이고 흥미를 가질 수 있듯이 남북한 관계에서도 쉽게 협상하고 교류가 가능한 분야이다. 이러한 스포츠의 기능이 그동안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었을 때마다 완화시키는 중요한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스포츠교류의 활성화가 중요하며, 이에 따른 남북한 정권의 스포츠교류의 목적 역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신문들 분석을 통해 남북 정권의 스포츠교류 목적이나 방향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효과적인 스포츠정책을 마련에 중요한 단초인 것이다.

30) 공동보도문은 다음의 내용이 추가 되었다. “패럴림픽 대표단 및 선수단 파견(경의선 육로 이용 3.7 방남,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귀환 등)”(통일부 통일북스 2018년 2월 자료 참조)

31) 회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논의되었다. “△남북통일농구경기 7.4 계기 평양 개최 및 가을 서울 개최 △2018 아시아경기대회 폐회식 공동입장 및 일부 종목 단일팀 구성 △남북간 체육협력 활성화(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 공동 진출, 남과 북이 개최하는 국제경기에 상호 참가, 종목별 합동훈련·경기 등)”(통일부 통일북스 2018년 6월 자료 참조)

32) 회담 시 협의된 내용은 다음 공동보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① 2020 도쿄올림픽 등 국제경기 공동진출, 당면하여 2019 남자 세계핸드볼선수권대회 참가문제부터 실행, ② 2032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의향을 담은 서신을 IOC에 공동 전달, 필요한 문제들을 계속 협의, ③ 상대측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에 적극 참가, 친선경기 진행 등 체육교류 실무적 문제들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통일부 통일북스 2018년 11월 자료 참조)

33) 분과회담 당시에는 다음과 같은 논의들이 진행됐다. “△2032 올림픽 공동개최 의향을 담은 편지를 빠른 시일내 IOC에 전달, IOC와 공동으로 ‘19.2.15 회의 개최 △2020 올림픽 단일팀 구성 및 합동훈련 계속 협의, 2020 패럴림픽 공동진출 △체육분야 교류협력 문제, 문서교환과 실무회의 등 통해 협의”(통일부 통일북스 2018년 12월 자료 참조)

현재 남북은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를 희망하고 있다. 폐쇄적인 북한 사회가 올림픽과 같은 큰 국제스포츠대회를 남한과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일부 사회를 개방해야 할 것이다. 이는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그리고 올림픽 공동개최국인 북한이 남북 스포츠교류에 보다 적극적으로 태도 변화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를 위해서 남북스포츠계가 협력해야만 한다. 우선적으로 다가오는 2020도쿄올림픽과 2022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남북한이 단합된 모습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남북스포츠계에서 단계별로 스포츠협회가 진행되어 신뢰를 얻고, 이를 성실히 실천해 가는 과정을 보여 줄 때이다. 이를 기반으로 2032년 올림픽을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다면, 남북 스포츠교류의 발전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그리고 통일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IV. 남북 스포츠교류 전문가 의견

1. 독일 스포츠학자 자문

연구 기간 중 본 연구진은 3명의 독일 학자들에게 남북 스포츠교류와 동서독 스포츠교류와 관련 총 5회 자문을 받았다. 자문의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스포츠교류와 남북통일

먼저, 스포츠교류와 남북통일의 상관관계를 예측하기 위해 독일 스포츠학자에게 동서독 간의 스포츠교류가 독일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물었다. HOO 교수는 스포츠는 통일에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통일은 오직 정치에 관한 것일 뿐 스포츠와 연관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IOC의 주장일 뿐이라고 답했다.

한편 1972년 원헨올림픽 당시 스포츠교류 외에 민간 영역의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서독의 원헨으로 온 여행자들조차 선별된 인원들이었으며 동독 정부의 감시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동독 출신의 여행자들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다. 첫째, 서독에 가족이 없어야 한다. 둘째, 동독을 떠나고 싶다는 등의 체제 부정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동독에 남아 있는 가족이 있어야 한다. 넷째, 서독 시민들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당시 이러한 조건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만일 동독 출신 여행자들이 서독에 남아있거나 사라지게 된다면 동독으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기에 이러한 조건들은 엄격하게 지켜졌다고 한다. HOO 교수는 이 사실들이 1989년 통일 이후 아카이브를 공개하며 밝혀졌다고 했다. 통일 이전 동독은 공식적으로 동독이 자유국가이며 누구든 원하는 곳을 여행할 수 있다고 공언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NOO 교수 역시 스포츠는 통일에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통일이 독일 스포츠의 변화에 미친 영향은 막대했다고 답했다. 또한 1972년 뮌헨올림픽은 동독이 냉전시대의 스포츠 대결에서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답했다. 한편 남북의 상황은 동서독의 상황과는 단절과 반목의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평창에서 남북이 기대하고 추구했던 가치는 동서독이 스포츠교류에서 기대한 것에 비해 훨씬 높은 무언가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과거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와 같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묻는 한국인들의 기대는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동서독 간의 통일은 스포츠와 관련이 없었다. 동서독 간에는 애초에 스포츠 교류가 계속해서 있어왔다. 과거 독일에서는 UEFA(유럽축구연맹) 경기 등을 통한 교류가 계속 있어왔고,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단절은 동서독 간의 단절보다 훨씬 견고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평창올림픽에서 당신들이 기대하고 추구한 것은 과거 동서독 통일과 관련된 그 어떤 올림픽에서의 가치보다도 더 높을 것이라 판단한다.(NOO. 2018. 7. 20.)

2) 독일의 사례와 남북 스포츠교류 정책

본 연구진은 동서독 스포츠교류의 사례가 한반도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이를 바탕으로 한 남북 스포츠교류 정책 방향에 관해 물었다.

HOO 교수는 통일 이전 동독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했던 반면 서독에서는 NOC(National Olympic Committee)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답했다. 그는 사적 영역의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공적 영역의 교류를 늘리는 것보다 더 수월하며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동독과 협상하는 서독이 그랬듯 북한의 독재 정권과 대화하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인 남한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교류는 이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뮌헨올림픽 당시에도 준비 과정에서 동독은 항상 불만을 표출했지만, 막상 교류가 시작되면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메달획득을 통해 체제를 선전하고자 하였다고 답했다.

동독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 내지 독재정권과 협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

운 일이다. 그들에게 협상에서의 자존심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실질적인 협상의 내용보다도 형식과 지위가 더 중요하다. 원헌 올림픽 당시에도 동서독 간 협상과 준비과정은 매우 어려웠다. (HOO. 2018. 7. 20.)

또한 HOO 교수는 스포츠교류에서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첫째는 교류를 통해 북한이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 둘째는 스포츠 교류 자체에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동독의 경우 항상 스포츠를 정치체제의 선전도구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동독은 항상 스포츠를 정치체제의 선전도구로 활용했다. 그래서 1972년 원헌올림픽 당시에도 동독에서는 어떤 선수를 올림픽에 참가시킬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존재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메달을 딸 수 없을 것 같은 선수를 참가시키지 않았으며 매우 뛰어난 선수들만 참가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 반면 이번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들의 기량은 그리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북한에는 이러한 위원회가 있는지 궁금하다. (HOO. 2018. 7. 20.)

NOO 교수는 통일 이전의 스포츠교류는 엘리트 스포츠에서의 교류뿐만 아니라 풀뿌리 생활체육 차원에서의 교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리트 스포츠 수준에서의 교류가 생활체육의 교류로 이어지기는 힘들지만, 생활체육, 유소년체육, 학교체육 수준에서의 교류가 엘리트 스포츠 차원에서의 교류로 이어지는 것은 비교적 수월하며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남한과 북한의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풀뿌리 생활체육의 차원부터 엘리트 스포츠의 차원까지의 교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은 좋은 시작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단일팀을 구성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개인종목에 한해서였다. 팀워크를 요구하는 종목에서의 단일팀은 구성된 적이 없었다. 알다시피 많은 국가에서 모방하고 있는 독일의 전통적인 스포츠시스템은 피라미드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창올림픽이나 탁구세계선수권대회와 같이 시작은 피라미드 꼭대기의 엘리트 스포츠부터이다. 이는 좋은 시작이지만 풀뿌리 스포츠까지 내려가야 한다. 하지만 더 좋은 방향은 풀뿌리 스포츠로부터 엘리트 스포츠의 교류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추천하는 바이며, 미래의 통일 바라보는 스포츠교류의 방향이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너무나도 오래 걸린다. 가까운 곳에서 교류가 가능한 접경도시에서의 학교 대 학교 또는 클럽 대 클럽 간의 교류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NOO. 2018. 7.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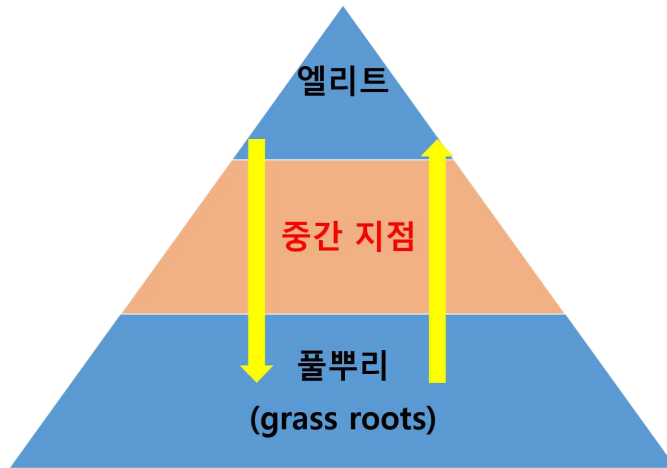


그림 1. NOO 교수가 제시한 남북 스포츠교류 모형

NOO 교수는 이러한 모형에 따른 스포츠교류에서 중요한 것은 2가지 차원 (아래에서 위로 / 위에서 아래로)과 3가지 시스템(엘리트 스포츠 / 학교체육 / 생활체육)이 복합적으로 병행되는 것이라 강조했다.

독일의 경우 스포츠 교류와 통일 이후의 스포츠에서 엘리트 스포츠시스템과 관련된 것에만 집중했고, 학교체육 차원에서의 스포츠 통일은 잊혀졌으며, 생활체육은 일부만 반영이 되었다. 통일 이후 새로운 조직이 생겼지만 논리적인 정책 시스템에 의해 통일된 것이 아니었다. 오직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의 메달과 관련한 동독의 유산에만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정치와 관련된 것이며 통일 이후 스포츠 관료 조직을 어떻게 조직하느냐가 중요하다. 통일 독일은 1990년대에 연방 차원의 스포츠 조직을 만들지 못했고, 교육, 보건 분야로 각 시스템이 쪼개져서 다루어졌다. 만일 연방 차원의 스포츠 조직이 있었다면 엘리트 스포츠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균형 있는 스포츠 통일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NOO. 2018. 7. 21.)

또한 NOO 교수는 통일 이전 양국의 스포츠 교류 및 정치적 통일 이후 스포츠 분야에서의 통일이 남북한의 그것과는 분명 다르겠지만 교훈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통일 독일의 스포츠 분야에서 범한 가장 큰 실수는 정치적 압박에 의한 신중하지 못한 스포츠 정책의 결정이었으며 남북통일 이후의 스포츠에서는 이와 같은 실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학교 체육,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이라는 서로 다른 스포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스포츠 전문가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남북 간의 스포츠 통일의 과정은 독일의 과정과 다르겠지만, 분명 교훈은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통해 독일에서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독일에서 나타났던 스포츠 통일의 잘못된 결과는 신중하지 못한 정치적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 정치인들이 연구자들에 비해 좋지 못한 정책 제안들을 했기 때문이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학교 체육,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sports-for-all) 분야가 독일에서 그랬던 것처럼 각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디 통일된 한국에서는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 (NOO. 2018. 7. 21.)

독일 출신의 토마스 바흐 현 IOC 위원장이 과거 독일 통일 사례를 교훈 삼아 북한의 엘리트 스포츠 유산을 지키는 법에 대해 더 고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2. 남북 스포츠교류 전문가 자문

다음으로 본 연구진은 2명의 통일부 관계자에게 남북 스포츠교류를 둘러싼 남한 당국의 정세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정치적인 측면에서 스포츠 교류의 역할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남북 스포츠교류에 관한 통일부의 입장 변화

본 연구진은 지금까지 남북 스포츠교류가 진행된 사례를 둘러싸고 남북 당국의 정세가 어떠한 변화를 거듭한 것인지 살펴보았다. 먼저, 정치적인 측면으로 볼 때, 1980년대~1990년대 경우³⁴⁾에는 남북 스포츠교류에 관해 다소 냉소적인 분위기가 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 당시에는 남북단일팀과

34) 1980년대~1990년대는 본 연구에서 제2시기(1984년~1990년 2월)와 제3시기(1990년 3월~2007년)에 사이에 해당한다.

관련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북한의 스포츠교류가 지바 탁구단일팀이고 있었지만, 그전 86, 88 때는 사실 양면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대화를 해서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하는 것 같지만은 한편으로는 북한은 체육교류가 체제경쟁에서 지는 그런 구도가 되기 때문에 견제하는 방해하는 그런 역할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서OO. 2018. 8. 3)

80년대 중반 체육회담을 보면 북한은 단일팀을 구성하지 않으면 남한 단독팀으로 출전 못 하게 하는 것으로 약속하라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배OO. 2018. 5. 28)

더불어,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와 1991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등에서도 한반도의 수교 차원의 스포츠교류가 아닌, 자국의 정치적 선전만을 고려한 스포츠교류로써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당시에는 남북 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만들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유럽이 무너지고 북한의 힘이 약화되는 상태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하는데, 김일성이 자기들 기를 살리기 위해서 교류를 한 것으로 그걸 통일열풍이라합니다. 북한주민들에게 열풍을 일으키는 기가 죽으니까 통일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배OO. 2018. 5. 28)

이후 남북 스포츠교류에 관한 정부의 부정적 견해는 진보성향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난 2000년대에 들어서 점차 변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진이 통일부 관료와 면담을 하던 중 2002부산아시아게임과 관련된 질문에서 유추해볼 수 있었다. 질문은 당시 북측 인원 중 남한에서 화제를 모았던 북한응원단인 ‘미녀응원단’에 관한 내용이었다.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 때는 북한에서 미녀응원단이 왔습니다. 제가 연락관으로 20일 동안 인솔을 해서 다녔습니다. 북한이 그 다음날 경기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연락을 하지요. 어디에 몇 명이 간다고 하면 우리가 차에서 먹을 점심도 시락 준비를 해 주어야 합니다. (...) 제가 기억할 때 북한 과자 맛이 없잖아요. 남쪽의 과자나 몽키 바나나, 쿨 이런 것들은 아마 북한 응원단들이 평생 잊지 못했을 맛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간식을 주었으니깐...이런 것들이 어떤 체제를 어떤 새로운 변화를 알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체육교류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체육교류는 기간은 다른 분야와 달라서 길다. 다른 교류들은 한 번 하면 끝나지만, 체육교류 기간은 길기 때문에 충분한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OO. 2018. 8. 3)

이처럼 남한 정부는 2002부산아시아나게임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있어 스포츠 교류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남한 사회에 보수성향의 박근혜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서 남북 스포츠교류의 우호적 평가가 진전할 수 있는 여건이 더는 조성되지 못한다³⁵⁾. 2014인천아시아나게임에서는 북한응원단의 참가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당시 북한 선수가 아시아나게임에 참가한 이유도 남북의 대화 차원 목적이 아닌 김정은 정권의 체제안정 차원이라고 평가되고 있었다.

그때(2014년)는 보수정부이고 2002년은 진보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은 응원단 비용을 다 부담하고, 2014년에는 원칙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것이 응원단은 원래 대상이 아닙니다. (서OO. 2018. 8. 3)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유연하게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깨져버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와도 좋고 안와도 좋은 것입니다. 한국으로서는 큰 부담은 아닌데 정부 정책의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입니다. (배OO. 2018. 5. 28)

2014년 남북관계가 안 좋았지만 참가한 이유는 북한이 인천아시아나게임에서 메달을 따서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도 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일 겁니다. 2014년 김정은 이가 정권을 안정화시켜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주민들을 북돋아 주고 하는 측면에서 온 것으로 봅니다. (배OO. 2018. 5. 28)

그렇지만 2017년 남한에 진보성향의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서 스포츠교류의 평가는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한다. 특히, ‘평화올림픽’으로 회자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로 하여 남북관계에 있어 스포츠교류는 중요한 역할로 다시금 인정받게 된다³⁶⁾.

35) 이때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제4시기(2008년~2017년)에 해당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 당시를 “남북 스포츠교류가 거의 단절될 정도의 어두운시기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금은 2014년이랑 해서 분위기가 다릅니다. 2014년은 북한이 그냥 와도 좋고, 안와도 좋고, 오려면 북한 마음대로 오라는 입장이고, 2018년은 남북한 서로가 정치적으로 좋게 하기 위한 것이고 김정은대로 미국의 압박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배OO. 2018. 5. 28)

긍정적인 면에서는 남북화해 분위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스포츠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이나 과거 남북관계 좋은 때 부산아시안게임은 남북화해 분위기를 드높이기 위한 스포츠교류였습니다. (배OO. 2018. 5. 28)

앞서 서술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1980년~1990년대는 남한 정부가 북한과의 스포츠교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던 때이며, 이는 2000년대 들어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남북 스포츠교류의 긍정적인 평가는 정치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어질 수도, 혹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사례 속에서 확인했다.

2) 통일부 관계자가 바라본 남북 스포츠교류의 문제점과 한계

본 면담을 진행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남북 스포츠교류의 한계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앞서 ‘1) 남북 스포츠교류에 관한 정부 관계자 입장의 변화’를 통해 볼 때 스포츠는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 조사됐다. 이에 따라 스포츠를 ‘통일’이라는 하나의 긍정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붙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남북 스포츠교류가 더욱 활발히 성사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면담자들은 ‘남북 스포츠교류에 관한 기본 협정 부재’, ‘남북뿐만 아닌 북미 간의 이해관계’를 이유로 설명하고 있었다. 이는 아래의 면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36) 본 연구에서는 이 무렵을 제5시기(2018년 이후)에 포함하였으며, “남북이 화해하고, 남북은 물론 북미간 정상간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때로 보았다.

지금 남북 간에 독일과 같은 그런 체육교류 협정이 없습니다. 아니 남북 간에 공식적으로 지켜지는 협정이 어디가 있어요? 남북 기본 협상도 안 되어있고, 지켜지는 것이 없습니다. 체육교류도 기본 협정으로서 양국에 의해 기본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잖습니까. (서OO. 2018. 8. 3)

북미간의 비핵화 문제가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남북 간에 의미 있는 어떤 교류 협력이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서OO. 2018. 8. 3)

이처럼 통일부 관계자들은 남북 스포츠교류에는 선결되어야 할 내·외부적인 문제점과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남북스포츠 관계자와 정치권 관계자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이다.

3) 한국계 외국인이 바라본 남북통일 이후 스포츠정책에 대한 조언

다음으로 본 연구진은 1명의 일본 교수(재일교포) 관계자를 만나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남북 스포츠교류와 향후 남북통일 이후 스포츠정책에 관한 내용에 관해 질문하였다. 재일교포 일본 교수는 스포츠학자의 입장이자, 제3자의 입장에서 남북 스포츠교류에 관해 스포츠와 정치를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2018년 2월에 한국의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은 기억에 새롭다. 겨울 올림픽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가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아이스하키의 남북 합동 팀, 개회식에 북한 고관들의 초청 등 정치적 색깔이 노골적으로 나타난 올림픽이었다. 그 후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을 상기할 때 그 기점이 된 평창올림픽의 정치성도 강하게 드러났다. 다만 지금까지 논의한 스포츠와 정치 문제도 외교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며, 국가 간의 평화를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스포츠를 이용했다고 단순히 비난하는 것은 피해야만 한다. 스포츠와 정치는 떼어 내기 어렵고 늘 스포츠에 정치가 따라다니는 것은 본론에서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찾아야 할 것은 스포츠를 수단으로 달성시켜야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KOO. 2018. 9. 6).

위의 내용을 보면, 면담자는 스포츠가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있어 부정적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긍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수단적 차원으로서 스포츠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재일교포 KOO교수는 한반도 통일 이후 스포츠정책에 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현재의 한반도 정세에서 고려하면 문화나 스포츠 등의 영역은 남쪽 한국의 제도가 활용되면서 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 후 곧 찾아오는 정치적 안정은 한반도 전역에서 스포츠 정책의 실행을 촉진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 마련에는 시간적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경제적 안정은 민간 스포츠 진흥 및 프로화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시키게 된다. 만약 북쪽에 프로 축구 팀이 생기고 K리그에 참전하게 되면 경평전을 상기시키는 연설이 언론에 의해서 회자되면서 새로운 남북의 대항전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거기에서 전개되는 스포츠는 정치적으로 대립한 스포츠가 아니라 지역적 감정과 남북의 격차에 대한 불만의 배출구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한반도가 통일되지 않고 현재의 상태가 계속된다면 지금까지의 스포츠가 남북관계를 나타냈던 것처럼 계속해서, ‘통일’을 배경으로 양국의 의도가 스포츠를 매개로 어긋날 것이다. (KOO, 2018. 9. 6).

재일교포 KOO교수는 향후 한반도 통일 이후의 스포츠정책에 관해 언급하면서 북한의 스포츠 체제가 남한의 스포츠 체제로 편입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통일 이후에도 지역을 연고로 하는 프로팀이 생겨나 남북의 또 다른 대립각이 스포츠에서 다시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한편, 그는 통일이 되지 않고 지금과 같은 분단 상황이 한반도에 계속될 때는 양국이 ‘통일’을 위한 징검다리로서 스포츠를 앞으로도 활용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었다.

3. 북한이탈주민 면담

이어서 남북 스포츠교류 전문가라고는 볼 수 없지만, 4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 북한에서 남한 스포츠에 관해 접한 적이 있는지, 남북관계에서 남북 스포츠교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남북 스포츠교류에 관한 북한의 입장 변화

앞서 남한의 경우는 남북 스포츠교류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정권의 이념적인 성향, 다시 말해서 진보정권인지 보수정권인지에 따라 남북 간의 스포츠교류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려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진은 북한에서도 남북 스포츠교류에 대한 이러한 인식 변화가 있을 것이란 판단하에 북한이탈주민에게 질문을 하였다.

먼저, 북한에서 2002부산아시안게임을 접한 적이 있는지 물었을 때,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의 공통적인 대답은 북한 언론에서 2002부산아시안게임에 관해 당시 잘 보도해주지 않고 있었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남북 스포츠교류 사실을 북한에서 공개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이며 파급력이 미약하게끔 검열하여 공개한다는 사실도 확보하였다.

북한은 거기(2002부산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선전을 안해요. 뭐가 좀 나왔냐면,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 그거 할 때 조금 나왔던 거 같아요. 그래서 마라톤인가 무언가를 하는데 가는 길을 찍어서 내보냈어. 생중계를 하는게 아니라 편집해서 내보냈어. 그걸 보면서 남쪽을 보려고 했는데, 편집이라 다 나오지 않고 좀 불라고 하는데 나오지 않고. 거기 참가하는 선수들만 나올 뿐이지 우리들한테 파급 효과가 별로 없다니까. (HOO)

이와 더불어 2002부산아시안게임 때 남한에서 화제가 됐었던 북한 미녀응원단의 방남도 북한 언론에서는 중요하게 보도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거기서도 이제 그거(북한 미녀응원단)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막 방송으로 보진 못했던 거 같아요. (JOO)

다음으로 2014인천아시안게임 때는 여자축구 종목에서 북한이 4강에서는 남한을, 결승전에서는 일본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다. 당시 남한 정권이 보수 정권을 자처한 박근혜 정부였음에도 북한 사회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 언론 공개를 하였다고 한다.

그건(북한이 2014인천아시안게임 여자축구 종목에서 우승했던 결승전), 한국과 사이가 좋아질 때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재방송으로 틀어주고 그런 거거든요. (JOO)

또한 2014인천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종목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결승에서 만나 연장전까지 가는 고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승리는 남한이 차지하였지만, 북한은 이 사실과 관련하여서 긍정적인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아! 그 해(2014년) 아시안게임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아시안게임 때 보고왔거든요? 북한에서! 일본한테만 안 진 것도 다행이지..라며 되게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 북한 여자축구 강세보인 것보다 남자축구 결승에서 진 게 더 이슈가 됐던 거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좀 더. (경기에서 북한이) 졌는데도 그렇게 막화나고 그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POO)

이어 앞서 북한에서 남북긴장이 완화되어 가는 중에는 2014인천아시안게임 남북축구 시합을 재방송해주었다는 사실과 맞물려 다른 면담자에게도 남북교류에 있어 스포츠의 가교 역할은 남측과 북측에 공통적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북한)사람들이 되게 그걸(남자축구 결승전 공동진출)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같은 민족인데, 아시아에서 최고를 가르는 경기(결승전)에 둘이 같이 올라갔다는 걸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LOO)

이처럼 2014인천아시안게임은 북한에서 많은 화제가 된 대회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 무렵 남한에는 북한과 우호적이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있던 시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사료해 볼 때 스포츠는 남북의 이념대립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인 것으로 결론지어 볼 수 있다. 이는 다음 면담 내용을 통해 더욱 확신해 볼 수 있다.

북한이 하도 체육을 내세워 가지고 인천아시안게임에 왔을 때도 자기네들이 잘하는 견줄만한 종목으로 그리고 남쪽이 자꾸 교류하자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교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하자고 하니까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근데 그런 걸 제일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체육교류예요. 그것도 손해를 안 보면서 하고

나면 교류 한번 한 거니까. 그러니까 부담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교류가 남북 체육 교류예요. (HOO)

하지만, 비교적 정치적인 역학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스포츠 분야도 결국에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면담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였다. 이는 연구진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면담자에게 질문하여 답을 구한 부분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체육과 관련해서 김정은이가 체육에 관심이 높으니까 좀 해줘라 뭐 이렇게 했겠지. 그리고 그 뭐야. 이번에 평창올림픽은 김정은이가 간섭을 많이 했을거라고. 남북 관계 개선하자고 마음 먹고 딱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뉴스 형태도 많이 들어오고 로동신문에도 보도하라 이래 많이 했겠죠. (...) 그야 뭐 정치에 따라가는 거지. 남북관계에 정치가 좋아지게 되면 스포츠교류가 그냥 확대 될 거고... (HOO)

위 사실을 통해 남북 스포츠교류는 남북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다. 하지만, 스포츠 분야는 남북의 갈등을 풀수 있는 가장 적합한 열쇠 중 하나인 것만은 분명하다. 기타 문화·예술 분야는 이데올로기적 색채가 다분히 묻어져 있는 반면, 스포츠는 이념에서 비교적 벗어난 인간의 자유로운 신체활동이며, 남북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신체문화이기 때문이다.

이 체육교류 라는 게 북한에서도 받아들이기 쉬운 게 영향력이 약해요. 예술은 이데올로기 같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검토해야 하고 자본주의 찬양하는 게 나을까봐 걱정스러운데 체육은 뭐 가서 뛰고 그러니까 이런 이데올로기 같은 게 없잔아요. 운동장에서 또 운동복 입는다 해서 운동복이 좋고 나쁘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게 없잔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하는데 있어서 제일 부담이 적은 게 체육교류예요. (HOO)

2) 북한이탈주민이 바라본 남북 스포츠교류의 문제점과 한계

북한이탈주민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남북 스포츠교류의 한계는 남한 스포츠교류 전문가와의 만남에서 확인한 부분과 비슷하다. 즉, 스포츠는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 조사됐다. 더욱이 북한의 폐쇄적인 상황도 남북 스포츠교류를 진전하지 못하는 이유로 손꼽을 수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 사회에서는 체육이 강조되고 있는 점만큼은 사실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북한에서 매체를 통해 외국의 스포츠 문화를 보도해준다고 내용에서도 짐작해볼 수 있다.

하지만 요즘은 우리가 체육을 좋아하니까 요즘은 북한이 외국 나가면 뉴스를 조금 더 크게 해주니까. 티비에서 그거를 중계 해주겠는지. 이걸 다 봐야 우리의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아는 거지. 최근에는 뭐가 좀 있나 하면, 국경 지역에서 중국 티비를 통해서 몰래몰래 보는 거지. (...) 여자축구라던가 모 이런 거(남북 스포츠교류) 하자고 하면 하자고 하겠지. 그리고 농구는 뭐 원래 김정은이 하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농구 경기 같은 거 하자고 하니까 좋아하고. (LOO)

이처럼 김정은 정권의 체육 강조 덕분에 북한에서도 다른 나라의 스포츠 문화유입과 남한의 스포츠교류도 왕성해진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스포츠를 통한 남북이해 증진을 위해서 현재의 시기가 가장 적합하며 남북교류의 핵심적인 역할을 스포츠가 해줄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V.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스포츠교류 활성화 방안

1. 남북 스포츠교류의 법적체계와 원칙

남북 스포츠교류협력의 법적 근거는 1990년에 공포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다. 동법 1조는 남한과 북한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이 법제정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법 24조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³⁷⁾. 그리고 남북 체육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통일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주무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협력관(국제체육과)과 통일부의 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과이며, 정부협의체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통일부 장관)로 명시하고 있다³⁸⁾.

2017년 말 현재까지 643여 차례의 남북회담이 이어졌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크고 작은 남북합의서만도 239개에 이른다(통일부, 2018: 271). 그중 남북 스포츠교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합의사항은 1991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이다. 그중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는 스포츠 교류·협력의 내용이 명문화된 바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542-543). 이러한 합의서의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추진 방향을 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서가 원칙이 될 수는 있어도 이것이 적용되고 실현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37) 2002부산아시아나게임에서는 21억,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13억원이 지출되었다. 이번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서도 29억이 지출되었고, 서울시 역시도 11억5천600만원을 지원했다.

38)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6체육백서』, 493-494.

2. 평화지향의 스포츠교류 정책

올림픽은 평화를 상징한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IOC의 지원도 바로 평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남북 스포츠교류에도 평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남북 스포츠교류의 법적 구축

평화체제는 일단 법적인 효력을 지닌 합의서와 그것을 실행할 조직과 예산이 갖추어져야 한다. 지난 세월 수많은 남북합의서가 채택되었으나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논란이 많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김계홍은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이 조약인지 아니면 신사협정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먼저 조약과 신사협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³⁹⁾고 말한다.

1972년 서독의 경우에도 우리와 같이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고 조약을 성립시킬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난항이 있었다. 1973년 7월 31일에 서독의 연방헌법재판소가 “기본조약이 평화의 보장과 분단고통 완화라는 인도적인 측면에서 전 민족의 이해를 고려하고 있으므로 기본법의 『통일』 명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이 기본조약에도 불구하고 독일민족의 단일성과 단일 독일국적은 고수되고, 동독은 국제법상의 ‘외국’이 아니므로” 합헌으로 판결을 내림으로써 논쟁이 종식되었다⁴⁰⁾고 한다. 2000년 「6·15공동선언」이 이루어지고, 이번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도 이루어졌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의 비준을 받는 절차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제는 정말 하나의 조약이 만들어지면 정권이 바뀌어도 이를 훼손하는 조치는 이루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39) 김계홍(200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합의서의 발효절차에 관한 사례연구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법제』, 법제자료. 51-67.

40) 김계홍(2008: 57),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조약이 대외적으로는 일종의 국제법적인 조약의 성격을 갖는 것이나 조약내용상으로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독일민족 내부의 관계만을 규정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시.

1991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 나왔던 다양한 교류협력을 단계별로 확대해야 한다. 김범식(1996: 36)은 남북 스포츠교류에 있어서 초보적 협력친화관계, 전략적 협력동반관계, 고도 협력통합관계를 구축하는 3단계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단계별 협력관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2032년올림픽 공동개최까지 더 많은 국제대회가 있고 남북이 협력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법상의 조약에 해당하는 보다 명확한 법률에 근거한 가칭 ‘남북공동스포츠교류협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한 것같이 남북은 지금보다는 격이 높은 가칭 ‘남북공동스포츠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⁴¹⁾.

2)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유치의 성공적 지원

9월 19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 4조 ②항에서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선언하였다.

그동안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부터 시작된 남북공동입장을 모든 올림픽에서 공식화하고, 공동응원을 하며, 단일팀구성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여 함께 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가급적 국제경기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진보성향의 한겨레신문(2018. 9. 20)에서는 “‘2032년 한반도 올림픽’ 멀다고 하면 안되겠구나”라는 재미있는 기사를 다음과 같이 실었다.

<에이피>(AP)통신은 “2032년 여름올림픽 유치 경쟁은 2025년부터 시작될 것이다. 여러 도시 분산 개최를 목표로 한 독일과 호주 브리즈번이 유치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인도올림픽위원회도 2032년 올림픽 유치에 관심을 보였

41) 김동선(2017: 54)은 ‘남북체육통합진흥원(가칭)’을 제시한 바 있다.

다”고 했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9일 평양공동선언 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의 임기를 마치는 2025년까지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 유치를 위해 적절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2020도쿄올림픽과 2024파리올림픽에서도 단일팀구성과 훈련에 관련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경제제재로 인하여 북한에 유니폼이나 훈련 장비를 지원하는 것도 힘들게 되어있다. 남과 북은 동서독과 비교하여 단일팀구성의 경험도 적고 엔트리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⁴²⁾.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선수단구성에서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나름대로 잘 마무리되었다. 2020도쿄올림픽과 2024파리올림픽에서는 더욱더 모범을 보여야한다. 그래야 2025년 최종결정이 날 때까지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남북한의 공동개최가 타당한 이유를 설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3. 공동번영을 위한 스포츠교류 정책

체제가 다른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적화통일을 걱정하는 것도 당연하고, 흡수통일이 되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것이다.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지만, 체제가 다른 두 집단이 당분간은 서로가 번영하는 형태의 정책이 필요하다.

1) 올림픽 공동개최 이익의 공유

광복 이후 신생국가 대한민국은 1948년 런던올림픽에 가기 위한 경비조차 마련할 수 없어서 런던올림픽후원권을 발행하여 모금하였던 가난한 나라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역동적인 나라로 변모하게 되었다(나영일, 2013: 126-127). 그런 의미에서 88서울올림픽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한 경

42) 남북한 단일팀구성과 관련해서는 김재우(2014, 2015, 2016)의 일련의 연구이외에 찬반을 묻는 의견조사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있다. ‘남북한 올림픽 단일팀, 지금껏 없었던 이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96330.

험을 가진 남한이 북한에 그런 경험을 전수해주는 것은 북한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올림픽조직위원회는 대회운영종합본부를 설치하고 31개 경기본부, 7개 행사본부, 25개 지원부서를 운영했으며, 강남의 허허벌판에 스타디움을 짓고 경기장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올림픽공원과 올림픽주경기장 등 33개 경기장을 만들었다. 당시의 총투자규모는 모두 2조 3,862억 원 규모였다(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공식보고서 1권, 1989: 825-826). 30여 년 전에 이 정도의 규모는 지금과 비교해도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다. 88서울올림픽은 3천110억 원의 이익을 남겼고, 그 이익과 체육진흥기금 4백11억 원을 합친 3천521억 원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만들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1989년부터 2017년까지 생활체육 활성화, 전문체육 육성, 국제체육 교류 증진 및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총 10조 443억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에도 9,95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⁴³⁾ 이 기금은 지금껏 한국스포츠진흥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해 메인프레스센터를 이용한 보도진은 인쇄매체의 취재기자 3,864명, 사진기자 533명, 기술보조원 800명이었는데, 그 중 외국기자가 4,297명이고 국내 기자는 900명이었다. 또 올림픽 기간을 전후해서 서울을 다녀간 외국관광객은 모두 24만 1,299명으로 집계되었다⁴⁴⁾. 이번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치러진 2월 9일~25일 기간 동안 경기 관중 141만 2,000명, 문화행사 54만 8,000명, 지역축제 156만 8,000명 등 500만7,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고, 외국인 관광객이 110만 2,000명으로 22%를 차지했다⁴⁵⁾.

만일에 2032년에 남북이 공동개최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북한을 방문할지 상상에 맡겨야 할 것이다. 북한이 남한과 올림픽을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다면, 삼성을 비롯한 IOC의 공식후원기업과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과 국내의 수많은 기업의 후원이 따라올 것이다. 이러한 보이지 않은 유산의 경험을 북한에 전수해야만 한다.

43) <http://www.kspo.or.kr/kspo/main/contents.do?menuNo=200090>.

44)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8046>.

45) <https://news.joins.com/article/22414051>.

2) 스포츠중계방송의 공유와 활용

스포츠는 가치중립적이기에 북한에서도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소재이다. 스포츠경기의 중계를 통해 남북교류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남북 스포츠교류 협력사업이 될 것이다. 현주(2018: 10-11)는 북한이탈주민과의 면접에 따르면 많은 남북의 스포츠교류경기가 텔레비전(조선중앙텔레비죤)으로 중계가 되지 않아 북한의 일반주민들이 남북한의 스포츠교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남한문화콘텐츠를 TV로 직접 시청을 하고 있고, 평양 지역의 경우에는 남한의 TV 송신 전파를 통해 실시간 시청을 하고 있으며, 중국 인접지역은 중국 TV를 통해 남한 방송을 시청한다고 한다. 남한 드라마 시청이 북한 주민들의 정치의식 등에 영향을 미치고 남한의 문화콘텐츠(드라마, 음악 등)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부감이 있는 남한의 문화콘텐츠보다는 스포츠중계방송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고, 점차 스포츠 프로그램과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북한에 방송을 송출시킬 필요가 있다.

3)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간의 교류협력 강화

남북한 단일팀구성에 앞서서 서로가 장점이 있는 공간의 개방과 교류를 진척시켜야 한다. 진천선수촌이나 원산 마식령스키장과 같은 곳에서 합동훈련의 기회를 가능하면 서로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겨울철에 따뜻한 남쪽지역에서 북한의 선수들이 훈련하고 동계종목에서는 남한선수들이 훈련기회를 갖는다면 서로에게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 북한과 국경을 같이하고 있는 인천, 강원도, 경기도는 북한과의 교류를 추진하여왔다. 지금의 교류를 더욱더 활성화하고 강화해나가야 한다. 또한 다른 지자체도 점진적으로 북한의 시도와도 자매결연을 확대하여 교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남북통일축구, 남북통일농구, 남북노동자축구대회 등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최근 북한의 수도인 평양은 그 어느 곳보다 발전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대적인 서울과 평양간의 경평전 부활은 남북한 간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미 제안된 전국체전 100주년기념대회에 북한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참여한다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이상으로 매우 상징적인 행사가 될 것이다.

4. 통일지향의 스포츠교류 정책

1) 쉽고 가능한 남북 스포츠교류 활성화

개성공단 재개문제는 남한이나 북한 모두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올림픽의 꽃이라는 마라톤을 이곳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도라산역에서 개성공단까지는 도로포장도 잘 되어있어 북한에서도 그 길을 개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며, 북한에는 우리보다 더 나은 뛰어난 마라톤선수들이 있어서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DMZ마라톤대회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사가 진행되려면 국방부나 UN과 같은 기관들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한계도 분명 있다.

남북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씨름을 공동으로 등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우리보다 4년 앞선 2013년 2월 25일에 국가무형문화유산 목록으로 명시하고, 2015년 3월에 씨름(Korean Ssirum Wrestling)을 2016년도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신청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유네스코는 관련국들이 공동 등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ICM: International Centre of Martial Arts for Youth Development and Engagement under the auspices of UNESCO)를 활용한 활쏘기, 그네, 씨름 등 전통무예종목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남북이 함께 마련하고, 이 센터를 플랫폼으로 유네스코를 앞세워 북한의 전통무예종목을 조사하고 발굴하며 청소년 캠프 등을 함께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엘리트스포츠만이 아니라 스포츠클럽수준의 생활스포츠와 학교스포츠의 시범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면 한다.

2) 남북한의 이질적인 스포츠환경 개선

70년 이상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면서 살아왔다. 통일은 모두가 바라는 바이기에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야 하나, 이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우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부터 차근차근 힘을 모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잘못된 것들은 수정해야 할 것이다.

단기간에 가능한 것은 공동스포츠용어사전을 편찬하는 작업이다. 이미 김동선(2017)을 비롯한 연구자들이 제안했다.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팀에서 최대고민이 언어라는 지적이 있었다. 몇 번의 남북단일팀 구성이 이루어지면서 서로의 말이 달라서 문제가 된 적이 많았다는 지적도 있다⁴⁶⁾. 그리고 2018아시안게임에서도 세 종목(여자농구, 카누, 조정)에서 남북 단일팀이 성사됐는데, 단일팀 선수들은 '이질적인 용어'를 호흡을 맞추는 데 걸림돌로 뽑기도 하였다. 북한은 문화어(표준어) 정책에 따라 스포츠 용어도 '주체식' 표기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국제공용어를 그대로 쓰는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인다. 국어운동문화본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⁴⁷⁾.

4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2/2018081200988.html.

47) <http://www.barunmal.com/article/187694>.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남북 스포츠교류를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분단 이후 진행되었던 동서독스포츠교류사 및 남북 스포츠교류사와 2002부산아시안게임,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남북한신문분석과 향후 남북 스포츠교류 시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남북 스포츠교류사는 5시기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제1시기는 1957년부터 1983년까지이다. 이 시기의 남북 스포츠회담은 북한의 공세적인 대화 제의와 올림픽과 세계대회 등에서 남한을 배제하려는 시도가 주로 진행되었으며, 실질적인 스포츠 교류보다 남북 간의 만남 그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

제2시기는 1984년부터 1990년 2월까지이다. 남북 스포츠회담이 과거 스포츠교류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대화가 진행되었던 것과 다르게, 실질적 남북 스포츠교류를 위한 대화의 작은 씨앗이 형성된 시기이다.

제3시기는 1990년 3월부터 2007년까지이다. 이 시기에 남북 스포츠교류는 서로를 이해하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남북한 선수단이 공동입장을 하는 등 실질적인 남북 스포츠교류가 진행된다.

제4시기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이다. 이 시기에 남한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이념이 북한과 크게 달라 남북 스포츠교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다가 중단된 시기이었다.

제5시기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부터 현재까지이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로 남북이 화해하고, 남북은 물론 북미 간의 정상간의 극적인 만남까지 진행되어 한반도 평화의 초석이 마련된 시기이었다.

이러한 구분은 남북한신문분석에서도 나타났다. 남북관계가 서로를 이해하며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던 제2시기에 해당하는 2002부산아시안게임에서는 남북한 언론 모두 관심이 많았으며, 상대국에 관한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았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제3기에 해당하는 2014인천아시안게임에서는 남북한 언론이 상대국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도하는 측면이 있었다. 일부 남한

의 보수언론에서는 북한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도 있었으며, 북한 역시 남한을 비난하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제5시기에 해당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남북한 언론 모두 스포츠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와 관련 보도가 많았다. 이는 남북 스포츠교류가 필연적으로 정치와 연동된 측면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기별 남한 주최의 국제대회에 대한 남북한신문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각 정권의 입장과 한반도의 정세변화를 이해하였으며, 남북한의 경우 스포츠교류는 스포츠와 정치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올해 개최되었던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한반도의 평화를 한걸음 앞당기는 평화추구의 스포츠적 가치와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던 스포츠교류였다.

그동안 수많은 남북 스포츠교류가 있었지만, 이번 2018평창동계올림픽만큼 의미가 있었던 때가 없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지난 9월 19일의 「9월 평양공동선언」까지 도출해낼 수 있었고, 북미회담도 두 차례나 가능하게 만들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올림픽 훈장 수여식에서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에게 2032년 서울과 평양의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의사를 전달하였고, 바흐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본다고 하였다.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개최는 남북의 평화와 통일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남북한 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남북 스포츠교류의 정책방향을 요약하여 <표 14>로 정리해보았다. 한민족이 통일이란 목표를 향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정책을 펼칠 것인가 하는 것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표에서 의미하는 과제는 대략적인 것이다. 평화지향, 통일지향, 공동번영이란 큰 틀에서 각각의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속도조절을 하면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민족이 2025년에 2032년 올림픽공동유치를 실현한다면 이는 통일의 시발점이 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표 20. 남북 스포츠교류 정책방향

정책방향	과제		단기	중기	장기
평화지향	남북 스포츠교류의 법적체계구축	남북 스포츠교류협약체결	○		
		남북공동스포츠위원회구축	○		
	올림픽을 통한 평화운동과 올림픽 가치교육의 정착	올림픽휴전 조항 실현	○	○	○
		올림픽 가치교육공동실험	○	○	○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유치의 성공적 지원	공동입장, 공동응원, 단일팀구성	○	○	○
공동번영	올림픽 공동개최 이익의 공유	올림픽경험전수/ 올림픽유산의 공유		○	○
	스포츠방송의 교류와 활용	각종스포츠중계방송공유및미디어 활용		○	○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와 협력	전국체전100주년 북한참여/인천, 경기도, 강원도 등 상호방문 교류협력강화	○	○	○
통일지향	쉽고 가능한 남북 스포츠교류 활성화	마라톤대회개최	○	○	○
		유네스코에 씨름 공동등재 및 국제무예센터(ICM)를 플랫폼으로 활용	○	○	○
		스포츠클럽수준의 생활스포츠와 학교스포츠대회의 시범교류	○	○	○
	남북한의 이질적인 스포츠환경 개선	통일스포츠사전편찬	○	○	
	남북한의 왜곡된 스포츠정책의 수정	국리민복정책도입/상식의 스포츠인권도입		○	○

남북 스포츠교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한다. 2025년에 올림픽 남북공동유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외적인 부분뿐만 아닌 내적인 부분에서 결속력을 다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남

북선수들의 공동입장, 공동응원, 단일팀 구성, 합동훈련 등을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교류할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19년 통일기반구축사업에서는 북한 선수들과 단일팀을 구성하여 합동훈련 및 시합에 출전했던 남한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면담하여 그들이 현장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스포츠로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더하여 선수 꿈나무, 지도자 그리고 통일에 대비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올림픽을 통한 평화운동과 올림픽 가치교육을 통해 올림픽휴전 조항 실현, 올림픽 가치교육공동실험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남북의 평화·통일지향과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남북 스포츠교류 관련 사업에 연장으로 지속적인 정책방향 제시와 그에 따르는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나영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스포츠교류 정책 방향
대한체육회 스포츠원. 2018. 8월호.
- 로동신문. 2002. 10. 12. 제14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여자축구선들 단연
영예의 제 1위 쟁취
- 로동신문. 2002. 10. 14. 북의 응원단 인기의 비결 남조선방송이 보도
- 로동신문. 2002. 10. 14. 제14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여자마라손경기에서 우리나라
함봉실 선수 영예의 제 1위 쟁취
- 로동신문. 2002. 10. 17. 인기를 독차지한 응원단
- 로동신문. 2014. 10. 25.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들과 감독들에게 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
인민체육인칭호와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함에 대하여
- 로동신문. 2014. 10. 6.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특기할 성과를 이룩한 우리 선
수들
- 로동신문. 2014. 10. 6. 주체조선의존엄과국력을떨친자랑스러운아들딸들을열렬히축
하한다
- 로동신문. 2014. 7. 20.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남자축구검열
경기를 지도하시었다.
- 로동신문. 2014. 8. 1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여자 축구검열 경기를 지도하시었다
- 로동신문. 2014. 8. 30. 괴뢰패당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응원단이
나가는것을 가로막은데 대해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할수 없다
- 로동신문. 2014. 9. 15. 응원단파건을 악랄하게 모독한 괴뢰군부패
- 로동신문. 2014. 9. 23. 체육경기장을 화약내로 뒤덮는 도발광대
- 로동신문. 2018. 2. 1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 23차 겨울철올림픽
경기대회 개막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출발
- 로동신문. 2018. 2.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 대표단 남조선 도착
- 로동신문. 2018. 2.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 대표단이 청와대에서 남조
선대통령을 만났다
- 로동신문. 2018. 2.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 남조선대통령과 여자

빙상호케이 북남단일팀 경기관람

- 로동신문. 2014. 9. 3. 응원단 파견은 왜 성사되지 못했는가
- 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6체육백서』
- 조선일보. 2002.10.09. 남·북 스포츠협약 이룬 시일 내 체결
- 조선일보. 2002.10.12. 북 아게임 참가에 남북기금 21억 지원.
- 조선일보. 2014.05.24. 北, NLL 포격 다음날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 조선일보. 2014.07.08. 군사훈련 과시하던 北 "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
- 조선일보. 2014.07.23. [달북여성 1호박사 이애란의 북한통신 20편] 북한 '미녀응원단'의 실체와 내막
- 조선일보. 2014.08.04. 北 "南, 아시안게임 정치적 악용 말라"
- 조선일보. 2014.09.01. 北 "인천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 무산 책임은 南에 있다" 또 다시 주장
- 조선일보. 2014.09.05. 통일부 "北응원단 와달라고 하진 않을 것" 김무성 "좋은 기회 놓치는 정부, 참 無能"
- 조선일보. 2014.10.04. 남북 고위대표단 환담 축구 얘기로 화기애애
- 조선일보. 2014.10.04. 류길재·北대표단 회동...인천AG 역도·축구 거론 '웃음꽃'
- 조선일보. 2014.10.04. 인천AG 부위원장 "朴대통령 대회 끝나기 전에 찬물"
- 조선일보. 2014.10.05. 김무성 "北 고위급 대표단, 생각 보다 훨씬 개방적"
- 조선일보. 2014.10.06. [北 최고위 3인 방문] 北 8일 軍人5종선수권대회도 참가... 남북 체육교류 훈풍
- 조선일보. 2014.10.08. [박두식 칼럼] 對北 정책이 선무당들의 '굿판'이 되어서 안 된다
- 조선일보. 2018.02.08. [사설] 北 이번엔 '김여정' 카드로 대북 제재 조롱
- 조선일보. 2018.02.14. 김정은 "남측이 온갖 성의 다해 인상적" 만족감
- 조선일보. 2018.02.26. [시론] '평창 後 한반도' 위기를 평화로 바꾸는 법
- 통일부·주독대사관. 1993.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 통일부통일교육원. 2013. 북한지식사전. 통일부 통일교육원
- 한겨레. 2002.09.07. 오늘 통일축구대회 /“통~일축구, 승부보다 화합계기로”
- 한겨레. 2002.09.09. [취재파일]'희망' 뿌린 통일축구
- 한겨레. 2002.09.24. 부산아시안게임 도착표정/북 선수단 “부산시민 환영에 감사”

- 한겨레. 2002.09.26. 아시아경기대회 D-3 좌담회/“남북 하나되고 아시아 어우러진
화합축제로”
- 한겨레. 2002.09.30. 아시아경기대회/‘하나된 남북’ 그순간-‘통일의 불’ 점화
“영원히 타올라라”
- 한겨레. 2002.10.04. 승패 떠난 남북 '우리는 하나'
- 한겨레. 2002.10.09. 남북 체육협약 추진/교류 올림픽위 단일화
- 한겨레. 2014.10.04. [전문] 남북 고위급, 오찬회담 앞서 '티타임'서 화기애애
- 한겨레. 2014.10.04. 북 최고 실세들 방문, '1석3조' 노렸다
- 한겨레. 2014.10.05. 김무성 대표 “북한 대표단, 생각보다 훨씬 개방적”
- 한겨레. 2014.10.05. 박 대통령 전향적 변화할까...5·24조치 해제가 '가능자'
- 한겨레. 2014.10.05. 황병서 “이번에 오솔길 냈는데 앞으로 대통로 열자”
- 한겨레. 2014.10.05. 황병서, 부드럽고 분위기진중, 최룡해, 달변...분위기 주도,
김양건, 다양한 이들과 대화
- 한겨레. 2014.10.06. “우리도 북한에 통 크게 답하자” 여당서도 '5·24 조치 해제'
힘 실려
- 한겨레. 2018.02.08. [한겨레 사설] 평창 너머 '평화의 길' 여는 올림픽 되길
- 한겨레. 2018.02.09. 외신 “역사적 악수” “평화의 희망” 평창 개막식 타전
- 한겨레. 2018.02.11. 첫 국제무대 나온 김여정, '실세 특사'로 절제된 메시지
- 한겨레. 2018.02.17. 평화가 오나 봄...문 대통령의 열 달, 남북 겨울 녹인 10장면
- 현 주. 2018. 「남북한 스포츠교류의 역사와 전망」, 『스포츠과학』, 한국스포츠
정책개발원, 144